

2025 Vol.26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NEWSLETTER

# 대학혁신지원사업 뉴스레터



## C O N T E N T S

# 대학혁신지원사업 뉴스레터

2025 Vol.26

발행일 | 2025.12.19

발행인 | 이주열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

발행처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50834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PRIME의생명공학관 106호

TEL. 055) 320-3216 FAX. 055) 320-3207

E-mail. uispc0624@gmail.com

www.uispc.org

인쇄 | 대양프린팅

### 기고문

- 04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 전략: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혁신 아젠다 진단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교수\_ 조은영
- 08 전공자율선택제, 수요자 중심 교육혁신과 지속 방안  
송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팀장\_ 우선경

### 성과사례

- 12 몸건강, 마음건강 생활습관 만드는 '마음산책 - 5,000보 걷기' 프로그램  
경동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선임연구원\_ 유지영
- 16 사제동행으로 일궈낸 대학 생활의 빛 발자국  
경일대학교 교수학습혁신센터 선임연구원\_ 성은아
- 20 계명대학교 ONE-STOP 전공 정보 박람회 첫 개최: 전공 선택권 확대와 전공 탐색 지원 본격화  
계명대학교 학생성공센터 초빙조교수\_ 신종원
- 24 남서울대학교, 지역 주민과 함께 '우리동네 페스티벌' 성료  
남서울대학교 초빙교수\_ 정준원
- 28 DX·AI 시대를 선도하는 데이터 혁신 - 대학 IR 시스템 「ATLAS」 구축  
대구대학교 기획처 성과관리센터 센터장\_ 원승건
- 30 스스로 마음을 돌보다, 대학적응위기군 학생 지원을 위한 온라인 명상 프로그램 성과사례  
대구한의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연구원\_ 김예주
- 34 교육의 디지털 전환 선도: 에듀테크로 완성하는 혁신교육  
대구한의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연구원\_ 주정빈
- 38 시기반 전자지원 서비스 도입을 통한 연구학습 혁신 - DBpia AI 국내 대학제1호 도입 등 생성형 AI 서비스 운영 성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 팀원\_ 나예슬
- 42 핵심역량 갖춘 동국108리더스, 신입생 성장 이끌다 - 열린전공학부 멘토링(CA) 프로그램 운영 성과  
동국대학교 학생역량개발팀 팀원\_ 김시현
- 46 책과 피크닉(Book + Picnic)을 결합한 북크닉(Booknic) 운영 사례  
동아대학교 학술정보서비스과 담당\_ 이해인
- 50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런치 콘서트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강사\_ 조혜은
- 54 동의대학교, AI 혁신 대학 비전 발표 전국 사립대 최초 구글 레퍼런스 대학 도전  
동의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선임연구원\_ 강도희
- 56 전공 나답게 선택하자! '전공자율선택제' 재학생을 위한 수원대학교 '2025 전공박람회' 성공적 개최  
수원대학교 EDISON전공설계지원센터 선임위원\_ 이정범



- 60** 찾아가는 전공 맞춤형 특강 프로그램  
신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직원\_김지연
- 62** “창업대아리에서 실리콘밸리까지!” 교내 창업 프로그램 성과 확산 사례  
을지대학교 진로취창업센터 담당\_박수정
- 66**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홍보데이 - “이그와트와 혁신의방” 개최  
이화여자대학교 미래혁신센터 대리\_임정민
- 70** 대면 너머의 상담, 디지털로 연 마음 건강의 길  
차의과학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사원\_홍신영
- 74** AI기반 대학 수업혁신, HyFlex강의실 구축 및 운영  
청주대학교 교육혁신원 직원(기술주사)\_김용석
- 78** 한남대학교 사회봉사인성센터 - 대학 공동체의 새로운 혁신 ‘사제동행’ 프로그램  
한남대학교 사회봉사인성센터 담당\_도수진
- 82** 현장 문제 해결형 교육의 확장, 산학공동연구 프로젝트  
한성대학교 산학교육지원센터 팀원\_이은혜
- 86** 학생주도형 해외탐방사업 KBU 글로벌 챌린지  
한국성서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 센터장\_문지예
- 90** HUFSAbility Festival, 비교과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혁신원 혁신지원팀 담당\_천지영

### 학생사례

- 94** 장애학생 학습지원 및 멘토링 활동 ‘같이의 가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학생\_신선아
- 96** 신입생들의 첫 길라잡이가 되어주다 전주대학교 JFM 멘토링 참여 사례  
전주대학교 인문콘텐츠대학 웹툰만화콘텐츠학과 학생\_이현주
- 100** 다시, 정상으로 - Baja Student Korea 2025 우승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계공학부 학생\_유준선

### 행사소식

- 104** 학생 중심 통합상담체계 ‘DU-CareBridge’ 구축 및 운영  
대구대학교 기획처 성과관리센터 담당\_이태균
- 106** [캠퍼스 혁신 특독] 교내 구성원과 함께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의견수렴 행사 개최  
인천가톨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학생\_김민지
- 110** 혁신이 일상이 되는 대학, 조선대학교 ‘2025 혁신 DAY’ 현장 이야기  
조선대학교 대학혁신사업지원단 행정지원팀 팀원\_허성철

#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 전략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혁신 아젠다 진단



조은영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교수

## 다층적 위기에 직면한 고등교육, 새로운 국정 아젠다의 의미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은 현재 네 가지 구조적 위기가 중첩되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①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②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의 역량 및 자원 양극화 심화, ③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한 인재 공급의 미스매치, 그리고 ④ 고등교육 재정의 만성적 취약성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교육 분야 6대 국정과제를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고등교육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에서 추출되는 고등교육 혁신 아젠다는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거시적 목표 아래, ‘공간적 혁신(Spatial Innovation)’과 ‘기능적 혁신(Functional Innovation)’이라는 두 축으로 체계화됩니다. 저자는 본 고에서 이 핵심 아젠다들의 정책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전략적 제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공간적 혁신-지역대학의 위상 재정립과 국가 발전의 동력화

고등교육 시스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은 더 이상 교육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생존 전략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1) 거점국립대 육성과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구축

국정과제의 핵심에는 거점국립대의 전략적 집중 육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소위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상징적 목표 하에, 거점국립대를 지역의 교육·연구 허브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재정 지원 확대가 아니라, 대학의 연구 역량을 학부-대학원-연구소 연계 지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 전략산업의 기술 주도 성장을 견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전면 도입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수평적 협력 거버넌스를 제도화 하였습니다. 대학은 RISE 체계 하에서 지역의 산업 수요와 초광역적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특성화된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로써 대학은 지역 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매개체로 기능하게 되며, 이는 고등교육기관의 공공성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로 확장하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 2) 평생·직업교육 체계의 확대와 교육 접근성 제고

지역대학의 역할을 확장하는 또 다른 축은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입니다. 이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재교육(Reskilling) 및 향상 교육(Upskilling) 수요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이며, 대학이 학령기 학생 중심의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변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계약학과 및 산학연협력 기반 교육 프로그램 확대는 입학에서 취업까지의 경로를 실질적으로 연계하여 청년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실천 과제입니다.

## III. 기능적 혁신 - AI 디지털 시대의 초지능형 인재 양성 전략

미래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고등교육의 기능적 혁신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국정과제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은 대학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 1) AI 융복합(AI+X) 인재 양성과 교육 시스템의 혁신

정부는 대학(원) 대상 AI 융복합(AI+X) 교육과정의 확산과 관련 학과 정원 증원을 통해 혁신 인재 공급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모든 전공 분야에 걸쳐 AI 및 데이터 분석 역량을 필수적으로 융합하여, 디지털 전환(DX) 시대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전략입니다.

나아가,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 강화는 성인 학습자 대상 온·오프라인 AI 재교육 확대로 이어져, 산업계 인력의 디지털 전환 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대학은 이와 관련하여 교육 방법론에서도 AI 기반 챗봇, 시뮬레이션 플랫폼 등 최첨단 도구를 활용한 개인화된 학습 환경을 구축하여 교육의 효율성과 학습 만족도를 동시에 높여야 합니다.

### 2) 기초학문 및 인문학 교육의 연계적 강화

AI 시대의 인재는 기술적 숙련도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근간이 되는 창의적 사고, 인문학적 통찰력, 그리고 윤리적 판단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정과제가 기초학문 및 인문학 교육의 확대를 AI 인재 양성 기반으로 설정한 것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술 중심의 교육이 초래할 수 있는 협소한 시야를 극복하고, 미래 사회의 복잡한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고급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필수적 연계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정책 성공을 위한 선결 과제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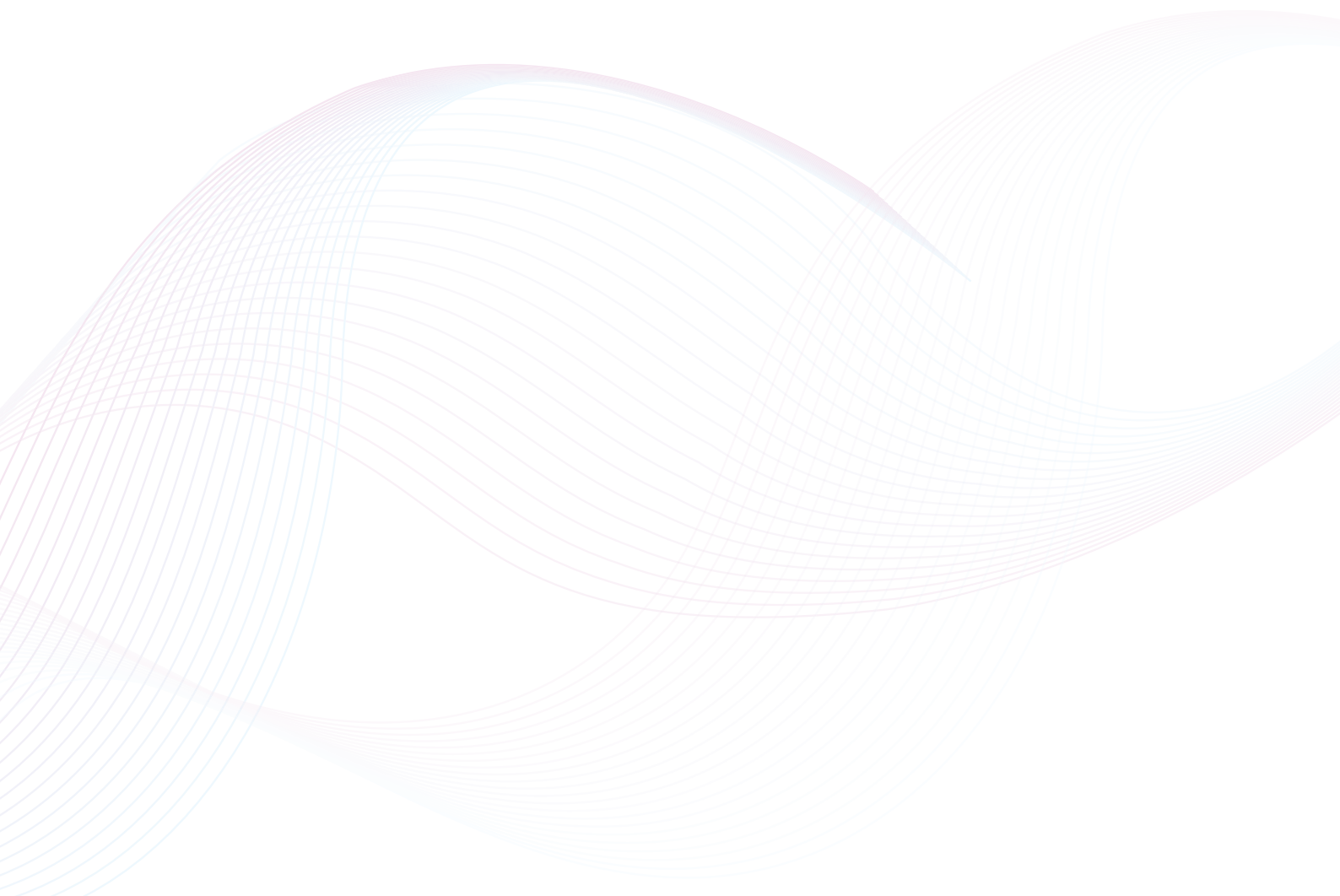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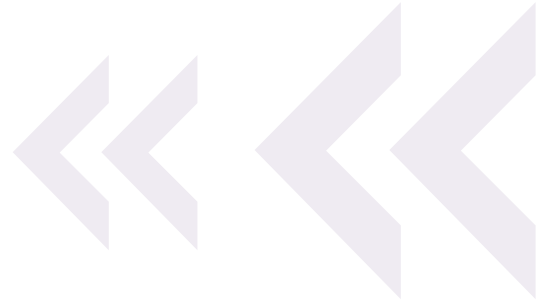
이재명 정부의 고등교육 혁신 아젠다는 우리 대학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목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 과제들이 정부와 대학의 파트너십 하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속적인 규모 확충입니다. RISE와 AI+X 교육 혁신은 단기적인 예산 투입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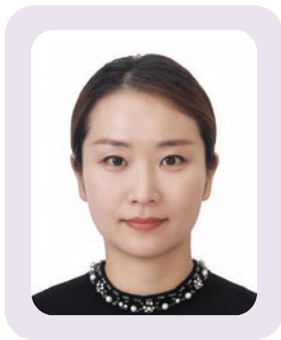
둘째, 교육 거버넌스의 혁신과 대학의 자율성 확대입니다.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국정과제는 대학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하고, 관료주의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대학은 정책 목표의 수동적 이행자가 아닌,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로 기능해야 합니다.

셋째, 한계 사립대학에 대한 선제적 구조 개혁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교육부는 '사립대 구조개선법' 등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고등교육 생태계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이러한 국가적 아젠다의 실질적인 실행 동력입니다. 국정과제의 실천 과제별 실행 가능성(Feasibility)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재정 및 규제 개선에 대한 구체적 정책 피드백을 제시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 고등교육 혁신은 정부의 정책 기획과 대학 현장의 창의적 이행이 수렴하는 지점에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공자율선택제, 수요자 중심 교육혁신과 지속 방안



우선경

송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팀장

2022년 11월 30일, chatGPT 3.5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불과 3년 만에 인공지능이 촉발한 변화는 인류 역사상 ‘불의 발견’에 비견할 만한 대변혁이다. 신기술의 속도는 인간의 적응 속도를 앞지르고 있으며, 산업·직무·학문의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대학은 더 이상 단순한 ‘전문가 양성’이 아니라,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학의 기존 교육 패러다임은 근본적인 질문을 받고 있다. 눈치 빠른 교육소비자들은 대학 진학을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비롯한 재정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해 왔고, 그 성과 또한 분명하다. 하지만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는 수준의 혁신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전공자율선택제’는 교육혁신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공급자 중심의 대학 교육을 학생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더 이상 전공의 틀 안에 머물지 않는다. 다양한 학과의 정보를 수평적으로 탐색하며, 성적이 아닌 진로적성과 비전에 기반해 전공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되었다. 반면 대학과 각 전공 학과는 학생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학과 단위의 자발적 교육혁신이 자연스럽게 촉발되었다. 다소 고된 변화이지만, 학과 혁신이 대학혁신의 실질적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전공자율선택제의 의미가 상당하다.

송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운영 사례에서도 이러한 전환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송실대는 전공자율선택제의 성공요소를 ① 자기이해 ② 전공·진로 이해 ③ 전문상담 ④ 학습지원 ⑤ 멘토링 ⑥ 공간 인프라 기반 인적교류 등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전공탐색’을 핵심요소로 설정하고, ‘넓고 얇은 탐색’에서 ‘좁고 깊은 이해와 선택’으로 이어지는 <Drill-Down 전공탐색> 체계를 구축하였다.

- 1단계 상시전공정보(Major Insight): 자유전공학부 전용으로 구축된 ‘자전라운지’는 학생 교류의 장일 뿐 아니라 전공탐색의 첫 단계로서의 역할도 담당했다. 각 학과가 신입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새롭게 제작한 소개

책자와 영상 등 매체물은 상시적으로 전공정보를 전달했고, 전공성과물은 그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도왔다.

- 2단계 전공박람회(Major Fair): 기존 상담 중심 설치부스형 박람회의 한계를 고려, 소규모 강의실이 밀집된 건물에서 강의실형 박람회를 운영하였다. 각 학과는 20분 단위 세션에서 전공비전을 압축적이지만 효과적으로 전달해내는 창의적 설계를 완성하였다.

- 3단계 전공심화탐색(In-Depth Major): <Major Insight>와 <Major Fair>의 후속으로 1시간 이상의 전공심화탐색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Major Fair>에서 한 차례의 요약적 이해를 도운 상황이었기에 기획 초반에는 어려워하는 학과들도 있었다. 하지만 곧 학과들은 전공 특색에 가장 적절한 샘플수업, 산업체 멘토 토크콘서트, 전공공간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해냈고, 전공박람회와 더불어 자유전공학부 프로그램 중 학생들이 가장 만족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 4단계 1:1 상담(Advising): 전공이나 진로와 관련하여 전공교원과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상당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학생이 원하는 형태로 교원의 적극적 지도와 피드백이 제공되어 전공과 진로에 대한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교과에도 활발한 변화가 있었다. 자유전공학부생의 수준과 특성에 맞추어 신규 교과목들이 개발되었다. 기초학습이 중요한 학과는 별도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현장적 교육혁신의 실례라 할 수 있다.

자유전공학부생의 전공탐색 과정에서 일어난 수요자 중심 교육과 대학적응 지원은 해당 학과 학생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학 학습 여정을 통해 자신만의 진로 지향점을 발견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며 이행하는 경험은 모든 학생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확대 가능한 혁신 성과들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전공 자율선택제는 대학 전체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다.

다만 전공자율선택제가 학과 중심의 풀뿌리 혁신으로서 지속적 기제가 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학과의 학생지도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공탐색과 진로지도는 교수의 본질적 책무이지만, 교수 개인의 헌신에만 의존해서는 지속되기 힘들다. 대학 차원의 집단적

교육역량으로 구조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재학생·졸업생·산업체 멘토, 전문상담인력 등 참여 주체와 범위, 각각의 역할을 정의하고, 학과 교원의 총괄 기반 의사소통 체계와 활동 품질을 보장할 매뉴얼 및 시스템 등의 개발이 포함돼야 한다.

둘째, 혁신의 표준화와 효율화를 위한 우수 모델 확산이 필요하다.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단어의 아름다움 뒤에는 다소 비싼 인적, 물적 비용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과가 전공탐색과 진로지도의 내용적 구성에 집중하는 동안, 본부는 전공탐색의 효과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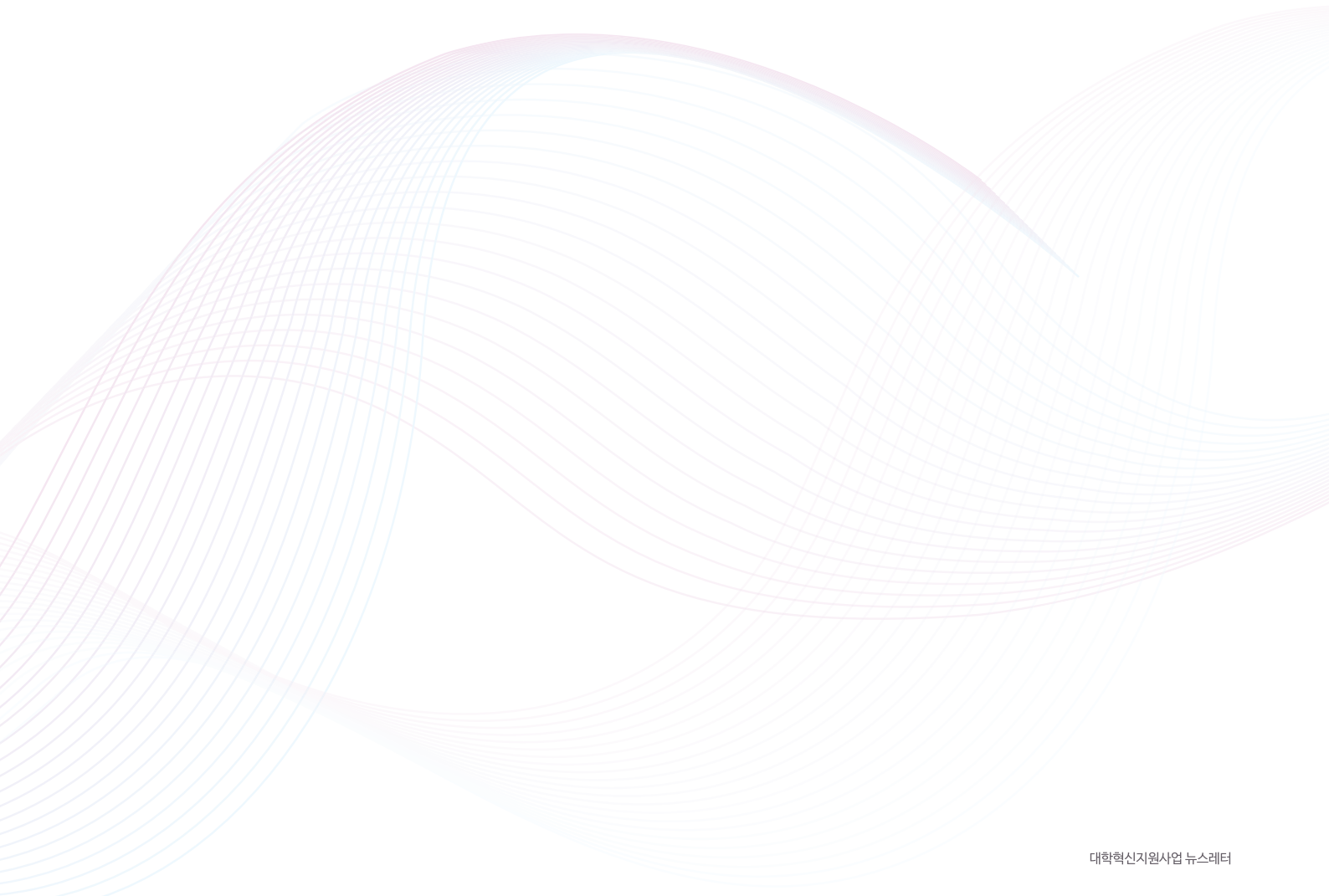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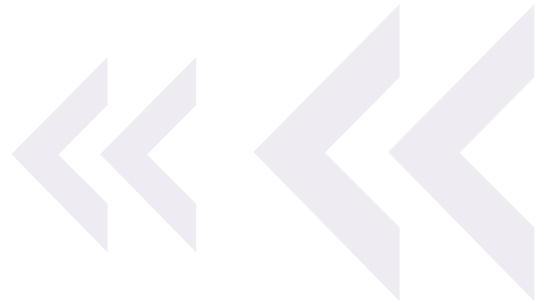
또 이러한 사례가 확산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진정한 혁신은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에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전공'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학과 간 연계와 융합을 강화해야 한다. 전공자유선택제는 학생의 선택권을 확장하지만, 동시에 특정 학과로의 쏠림을 유발한다.

이는 선호학과와 비선호학과 모두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교육혁신을 제약한다. 선호학과는 학생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의 유인이 적고, 비선호학과는 학생의 수요와 관심이 진로·취업 우려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전공선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마이크로 교육과정, 다전공·연계·융합 교육과정, 전공 간 유연한 이동 허용 등은 '하고 싶은 전공'으로의 진입을 확대하여 쏠림을 완화할 수 있다. 학과들의 자발적 혁신이 양적 질적으로 풍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과가 학생지원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학과 간 연계와 융합, 유연성 등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이유다.

불과 인공지능이 인류 역사에서 슬기롭게 활용될 때 큰 보배가 되었듯, 대학혁신의 영역에서 전공자유선택제도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학생을 능동적 '교육소비자'로 인정하고, 학생 중심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학과 단위의 자발적 혁신이 대학 차원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와 혁신이 지속되기 위해서 전공자유선택제가 야기하는 인적·물적 비용, 쏠림, 이로 인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심 등 난제의 극복이 필요하다.

2000년대 초 소멸의 길로 간 학부제의 전처를 밟지 않고 전공자유선택제가 지속적 혁신의 씨앗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이유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 몸건강, 마음건강 생활습관 만드는 ‘마음산책-5,000보 걷기’ 프로그램



유지영

경동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선임연구원

## 추진배경 및 목적

경동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재학생들이 대학생활 속에서 건강한 생활리듬을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산책-5,000보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음산책은 단순한 신체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학생활 초기에는 생활 패턴이 흔들리기 쉬우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 증가, 집중력 저하, 무기력 등 어려움이 나타나기 쉽다. 학생상담센터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규칙적인 활동과 성취 경험을 제공하는 시스템적 개입을 통해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재학생의 대학적응 능력 향상과 마음건강 지원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 운영내용

마음산책 프로그램은 하루 5,000보 걷기를 2주간 총 10회 실천하는 목표달성형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여 학생들은 매일 걸음 수를 인증하며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 시상금 및 상장을 받을 수 있었다.

2024학년도부터는 참여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운영 기간 동안 가장 많이 걸은 ‘걷기왕’ 선발 제도를 도입하여 참여 동기와 활동 지속성을 높였다. 또한 카카오휴덕 단체방을 활용한 온라인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이 서로 응원하며 자연스럽게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 운영성과

‘마음산책-5,000보 걷기’ 프로그램은 2022학년도 시작 이후 4년간 지속 운영되고 있으며,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바탕으로 2024학년도부터 매 학기 정례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지금까지 총 322명의 재학생이 참여하여 292명이 목표를 달성했으며, 평균 성공률 90.7%, 프로그램 만족도 평균 4.82/5점으로 매우 높은 성과를 보였다.

특히 걷기 습관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합산 20만보 이상을 달성하는 학생의 수가 매 학기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생활습관 개선 효과가 지속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년도	학기	참여인원	목표달성인원	성공률	만족도
2022학년도	2학기	37명	32명	84.5%	4.91/5
2023학년도	2학기	61명	57명	93.4%	4.83/5
2024학년도	1학기	56명	53명	94.6%	4.83/5
	2학기	56명	49명	87.5%	4.73/5
2025학년도	1학기	53명	50명	94.3%	4.83/5
	2학기	59명	51명	86.4%	4.78/5
계		322명	292명	90.7%	4.82/5

이 성과는 걷기라는 단순한 활동이 정서 안정, 자기조절, 습관 형성, 자기주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 활동 후기(참여자 소감 일부)

“처음에는 단순한 걷기였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체력뿐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걸 느꼈습니다. 스스로 목표를 지켜냈다는 뿌듯함도 컸습니다.”

“평소 공강 시간에 강의실 안에만 머물렀는데, 목표를 위해 일부러 밖으로 나가 걷게 되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걷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며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5,000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실천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산책 중에는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내 마음에 집중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진솔한 소감은 본 프로그램이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회복과 자아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음을 잘 보여준다.

###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학생상담센터는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참여 만족도를 지속 확대하기 위해 걷기왕 선발 인원 확대, 중간 단계 동기 강화 활동 운영, 참여자 간 소통 커뮤니티 활성화, 시상 방식과 참여 보상 다양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음산책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대학생활 적응도 향상, 중도탈락 위험 완화,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습관 형성, 심리·정서적 회복탄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은 걸음들이 모여 학생 스스로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힘을 형성하는 과정, 그 길 위에 학생상담센터는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메트로폴캠퍼스  
학생상담센터

목표달성 프로그램

# 마음산책

## 5,000보 걸기




신청기간: 3/25~28  
 신청방법: 온사람통합관리시스템  
 참여대상: 메트로폴캠퍼스 재학생  
 운영기간: 4/1~14 인증보고서 제출: 4/15~18  
 OT: 3/29(금) 14:30~15:30 우당관 1509호  
 시상식: 4/30(화) 13:30~14:30 우당관 1509호  
 운영방법: 4/1~14 (2주) 동안  
     매일 5,000보 걷고 만보기 캡처  
     2주 동안 9회 이상 성공 시 상금 3만원  
     7회 이상 성공 시 상금 2만원  
     5회 이상 성공 시 상금 1만원  
 문의: 학생상담센터 031-869-9961, 9963  
       sherry617@kduniv.ac.kr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



# 마음산책

## 5,000보 걸기

신청기간: 9/8~15  
 신청방법: 온사람통합관리시스템  
 OT: 9/17 13:30 Zoom 필참!  
 운영기간: 9/22~10/5 중 10회  
 보고서 제출: 10/13~15 카카오휴크 제출  
 문의: 학생상담센터 031-869-9961/9963

시상내역: 최우수상(9회 성공+최고 걸음수) 상금 10만원  
 우수상(9회 성공+걸음수 2, 3위) 상금 5만원  
 금상(9회 이상 성공) 상금 3만원  
 은상(7회 이상 성공) 상금 2만원  
 동상(5회 이상 성공) 상금 1만원





메트로폴 학생상담센터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 사제동행으로 일궀낸 대학 생활의 빛 발자국



**성은아**

경일대학교  
 교수학습혁신센터  
 전임연구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경일대학교 교수학습혁신센터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활동하는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사제동행 키움림(KIU-L林)’을 소개한다.

사제동행 키움림은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학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사제동행 키움림은 교수-학생, 학생-학생 간의 학습공동체를 통해 대학 생활 적응력과 유대감을 높이고, 중도 탈락을 예방하는 교수 주도형 학습 커뮤니티이다.

## 운영 개요

사제동행 키움림은 매 학기 초 교수와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공동의 학습 목표를 설정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수가 제출한다.

모집 유형은 A. 대학 생활 적응과 B. 학업 증진, 그리고 C. 학습 촉진으로 총 3개의 유형으로 모집을 진행한다.

유형	주요 내용
A 유형	대학 생활 적응
B 유형	학업 증진
C 유형	학습 촉진

유형	주요 내용
A 유형	대학 생활 적응
B 유형	학업 증진
C 유형	학습 촉진

특히 C유형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직전 학기 학사경고자에서 편입생, 전과생, 다전공학생까지 포함하여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모집 범위를 넓혔다.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운영 적합성, 명확성 등 선정심사 항목에 따라 운영에 적합한 팀을 선정하여 학기 동안 최소 6회(각 회차 2시간 이상)의 활동을 진행한다. 활동이 종료된 후, 제출된 활동보고서, 결과보고서, 성과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를 선정하고 학생들에게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한다.

## 운영성과

### ▶ 사제동행 키움림의 학내 관심도 증가

분류	2024-2학기	2025-1학기	2025-2학기
신청팀 수	37팀	64팀	41팀
신청 인원	교원 30명 / 학생 177명	교원 57명 / 학생 334명	교원 35명 / 학생 192명

매 학기 신청팀이 모집팀보다 초과하여 접수되고 있어 학내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 사제동행 키움림 만족도

분류	2024-1학기	2024-2학기	2025-1학기
만족도(5.0점)	4.86	4.86	4.84

지난 3개 학기 만족도 점수를 살펴봤을 때, 4.8점대를 유지하고 있어 참여 학생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 ▶ 전공 역량 강화를 비롯한 실무 경험 습득

지난 2025학년도 1학기 사제동행 키움림 최우수에 선정된 <로컬크리에이터 미디어브릿지>팀은 경북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를 주제로 삼아 다양한 지역을 탐방하고, 직접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맛집 섭외부터 기획, 촬영, 편집, 자막 작업까지 전 과정을 팀원들이 주도하여 TBC ' 지금은 지방시대' 프로그램의 솜품 콘텐츠를 완성했다. 학생들은 해당 키움림 활동을 통해 단순한 이론 학습이 아닌, 실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전형 콘텐츠 제작 역량을 단계적으로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2편의 방송 송출이라는 목표를 넘어 10편 이상의 실질적 결과물이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교육적 결과를 넘어 학생들이 실제 콘텐츠 제작자이자 로컬 미디어 창작자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방영일정** KIU 미디어크리에이티브학과 X TBC 지금은 지방시대

방영 영상 TBC 유튜브 편성 썸네일

사제동행 키움림 (로컬크리에이터 미디어브리징) 팀의 TBC 유튜브 편성 썸네일

**방영일정** KIU 미디어크리에이티브학과 X TBC 지금은 지방시대

방영 일정 (2025.08.10기준)

번호	지역	방영 일자	가게명
1	김천	2025년 4월 28일	성화원
2	김천	2025년 4월 28일	금릉군
3	고령	2025년 5월 12일	다산식육식당
4	고령	2025년 5월 12일	벨프타운
5	의성	2025년 5월 19일	연사동
6	영천	2025년 5월 20일	론기와집
7	포항	2025년 6월 2일	연블리즈
8	고령	2025년 6월 9일	녹청가
9	고령	2025년 6월 9일	시장브런치
10	경산	2025년 6월 10일	오늘은갈국수한그릇

사제동행 키움림 (로컬크리에이터 미디어브리징) 팀의 콘텐츠 방영 일정

▶ 성과공유회

사제동행 키움림에 참여하여 최우수 및 우수를 수상한 팀은 학기 말 성과공유회를 통해 자신들의 학습 과정과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5학년도  
**성과공유회 'SMART 학습나눔터'**  
 사제동행 키움림 키움리 튜터링 키움수룩 신나는 커뮤니티

2025학년도 1학기 성과공유회 'SMART 학습나눔터' - 사제동행 키움림편

## ▣ 학생 참여 후기

### 2025학년도 1학기 사제동행 키투림 참여 학생 <로컬크리에이터 미디어브리징> 박00 학생

이번 사제동행 키투림에 참여하면서 처음에는 큰 부담감이 앞섰습니다. 아무리 2분 이내의 짧은 영상 이라지만, TBC 방송국에 생방송으로 송출된다는 점에서 '지금 내 실력으로 이걸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컸습니다. 게다가 함께 팀을 이룬 친구들 대부분이 1학년이라 나와 3학년 친구 두 명이 조율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막연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직접 부딪혀 보니, 1학년 친구들의 실력은 생각 이상으로 탄탄했고,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실천 노하우들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값졌던 것은 대학교에서 지나가듯 배웠던 이론이나 프리랜서로서 경험했던 실무들이 이 프로젝트 안에서 서로 연결되며 실제 결과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나 자신도 놀라울 만큼, 배웠던 것들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과정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의 학교생활 중 가장 뚜렷한 성장을 느꼈으며, 이 키투림 활동은 내 전공 역량을 실질적으로 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 2025학년도 1학기 사제동행 키투림 참여 학생 <키투림 up!> 김00 학생

이번 학기 사제동행 키투림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교수님과는 수업에서만 만나 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이렇게 가까워서 소통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긴 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제동행 키투림은 교수님의 다양한 경험과 팁을 들으며 배움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진로나 학업에 대한 조언을 들을 때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교수님의 조언은 단순한 정보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사제동행 키투림에 참여하면서 대학 생활은 단순히 학문을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교수님과의 교류를 통해 학문적인 배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대학 생활과 제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 향후 계획

사제동행 키투림은 단순한 공동체 학습의 의미를 넘어 교수-학생 간의 상호 소통과 성장의 기회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학문 활동을 지원하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고충을 겪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 계명대학교 ONE-STOP 전공 정보 박람회 첫 개최 전공 선택권 확대와 전공 탐색 지원 본격화



신종원

계명대학교  
학생성공센터  
초빙조교수

계명대학교 교육혁신처(처장 이영호)는 전공 선택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ONE-STOP 전공 정보 박람회(이하 전공 박람회)'를 실시하였다. 올해 첫 실시한 전공 박람회는 상반기(2025. 5. 13.(화))와 하반기(2025. 10. 2.(목))로 나누어 동산도서관 광장에서 두 차례 개최하며,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또 다른 성과 사례를 만들었다.



전공 정보 박람회 전경

### 학생 중심 전공 탐색 지원체계 구축

전공 박람회를 주최한 교육혁신처의 학생성공센터(센터장 정대원)는 2025학년도 신설되어, 학생들의 전공 설계 및 기초학력 강화 등 학생 개별 성장에 초점을 맞춘 지원 조직으로 전공설계부와 기초학력부로 나누어진다. 자율전공부(무학과)학생, 다전공 희망 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전공설계 지원과 기초학력 교육, 비교과 활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전공 박람회의 각 전공 부스마다 전공 교원 1명 이상, 재학생 2~3명으로 구성되었다. 학생성공센터에서는 재학생 사전 교육을 시행하며, 각 전공을 잘 알려 나갈 수 있도록 자율전공부 학생들의 특색과 어떤 점을 궁금해하는지를 알려주었다.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전공을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전시물 등을 준비하였다. 특히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교원과 재학생이 함께 고민하며, 전공 자료에는 학과별 개성 있는 소개, 학년별 교육과정, 진로 로드맵, 관련 자격증 등의 내용을 담아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 성과사례 공유

상반기(361명 상담 참여)에는 9개 단과대학 28개 학과와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가상 단과대학인 K-Cloud College가 참여하였다. 특히, 학생 수요 기반 교육으로 자율전공부들이 관심있는 경찰행정학과와 스포츠마케팅학과 졸업생을 초청하여, 대학생활 중 교환학생, 국외봉사활동, 전공 선택 등에 대한 비결을 공유하였다.

하반기(552명 상담 참여)에는 9개 단과대학 38개 학과와 대학원팀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대학원 부스에는

학과부스 상담 후 대학원 진학을 고려한 학생, 졸업을 앞두고 전공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 방문한 학생들이 많았다. 또 학생성공센터의 학생서포터즈인 “이루미”도 참여하여, 눈높이에 맞춘 상담과 이벤트(고민 다이어리 꾸미기 등)를 진행하였다.

행사 관계자들은 전공 박람회의 주된 참여자가 전공을 정해야 할 자율전공부 학생이라 생각했으나, 전공 확정 재학생들도 다른 전공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에 놀라움을 전하였다. 한 참여자는 “한 전공으로는 미래가 불안하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관심 부스를 방문하여 상담에 참여했고, 현재의 학과와 함께 다른 계열을 융합하여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전하였다.



전공 정보 박람회 상담 장면1



전공 정보 박람회 부스 운영 장면1

전공 정보 박람회 상담 장면2



전공 정보 박람회 부스 운영 장면2

### 참여자 소감

박람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전체 만족도는 4.4점(5점 만점)이었고, 박람회에 참여한 교원과 재학생은 “타학과 학생들과의 소통의 장이어서 의미가 있었다.”, “학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 수 있었고, 학과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었다.”, “학문간 융합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전공교과목 운영에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을 알게 되었다.”, “학과 홍보를 넘어서 실질적인 전공 정보와 진로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라는 후기를 들려주었다.

또한, 참여한 학생은 “다양한 전공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자율전공부인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여러 학과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박람회를 통해 자신이 관심 있는 전공을 추릴 수 있었다.”, “관련 학과 교수님을 연락드리고 찾아뵙기에 부담스러웠는데, 박람회를 통해 편하게 궁금한 점을 물을 수 있어서 좋았다.” 라는 등의 소감을 밝혔다.

###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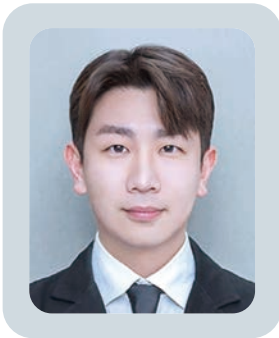
전공 선택권 확대와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전공 박람회는 학생들에게 학과 정보뿐 아니라,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디그리 등 다양한 학사 정보를 제공하였고, 자신주도적 전공 설계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 본 전공 박람회를 통하여 교원과 전공 부스 재학생에게는 학과에 대한 자부심과 정보제공을 위한 역량강화, 박람회 참여 재학생에게는 전공 탐색의 폭과 깊이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계명대학교 학생성공센터는 개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공 관련 고민이 있는 학생들에게 전공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전공설계 상담교원(학과 교수로 운영)과 전공 설계 파트너즈(재학생으로 운영, 10개 학과 시범 운영 후 확대 예정)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학생들의 요구에 기반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효과를 확대하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고자 한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 남서울대학교, 지역 주민과 함께 ‘우리동네 페스티벌’ 성료



정준원

남서울대학교  
초빙교수

## ▮ 남서울대학교, ‘우리동네 페스티벌’로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그린다

남서울대학교(총장 윤승용)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한 ‘우리동네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성공적인 상생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지난 11월 7일 천안시 성환읍 명동골목 일대에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학생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침체된 구도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 ▮ 지역에 활력을, 학생에게는 실천을

이번 ‘우리동네 페스티벌’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학생들에게는 배움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되었다. 남서울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천안시의회, 성환읍도시재생주민협의체, 대한적십자사 성환봉사회, 성환읍의용소방대 등 지역 단체와 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모두의 축제’라는 의미를 더했다.



## 성과사례

- 참여인원 : 천안시민 64명, 교직원 27명, 재학생 74명 (총 165명)
- 참여학과 : 영상예술디자인학과, 공간조형디자인학과, 스포츠비즈니스학과, 실용음악학과, 보건행정학과, 빅데이터콘텐츠융합학과



## 전공 연계 프로그램으로 '골목 공실'이 '활력 부스'가 되다

축제 현장은 대학과 주민이 함께 만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야외무대에서는 실용음악학과 학생들의 열정적인 공연과 주민들의 고고장구, 통기타 등 생활문화 공연이 조화를 이루며 세대 간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지역 건물주들이 침체된 골목의 '공실'을 '기회의 장'으로 기꺼이 내어주고 대학생들은 이 공간을 활용해 자신들의 전공과 연계된 '재능 나눔 부스'를 운영했다. 양궁 체험, 커피박 재생아트, LED 타악기 제작, 캐리커처, 아트 전시, 페이스페인팅 등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다채로운 체험 부스들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골목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는 '공간 제공'과 '재능 활용'이 결합되어 침체된 공간을 살리는 대학과 지역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될 것이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소상공인 가공품·수공예품 팝업스토어 운영



영상예술디자인학과 캐리커처 체험부스 운영



실용음악학과 마라카스 체험부스 운영

### ▮▮ '살아있는 교육의 장' ... 진정한 상생의 모델을 제시하다

이번 행사는 지역 상권 방문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주민과 학생들이 일상에서 교류하며 '생활권 중심의 문화와 상권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정준원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번 페스티벌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재능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었다”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함께’의 가치를 배우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전했다.

### ▮▮ 지역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남서울대학교

남서울대학교는 이번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혁신적인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 DX·AI 시대를 선도하는 데이터 혁신 대학 IR 시스템 「ATLAS」 구축



원승건

대구대학교  
기획처 성과관리센터  
센터장

대구대학교는 디지털 대전환(DX)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데이터 기반 대학경영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대학 통합 IR(Institutional Research) 시스템 「ATLAS(Advanced & Trailblazing Live Analytics System)」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성과관리체계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 ▮ 데이터 통합 기반의 차세대 IR 플랫폼

‘ATLAS’는 교내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이터웨어하우스(DW)\*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주제별 데이터마트(DM)를 구성하고, 성과관리 포털, 시각화 대시보드(BI), 온라인 데이터 분석(OLAP) 기능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교직원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민주화(Data Democratization) 환경을 조성한다.

ATLAS는 노코드(No-code) 기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 IT 비전문가도 코딩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과·행정부서별 성과지표를 손쉽게 조회·시각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를 갖춘 개발 참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 ▮ 교육과 참여를 통한 시스템 활성화

성과관리센터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교직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부서별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데이터 활용 문화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대학교는 (가칭) 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데이터 정책, 품질관리, 보안, 활용기준 등을 심의하고, 데이터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여 대학 전반의 데이터 관리체계를 정립할 예정이다.

이로써 학내 의사결정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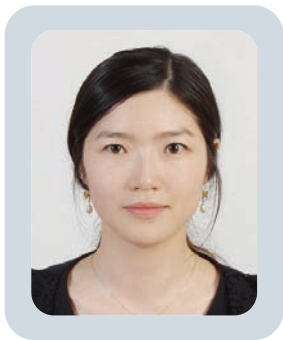
## 미래 확장 방향

ATLAS 시스템은 안정화 단계를 거친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 예측분석 서비스, 빅데이터 시뮬레이션, 맞춤형 성과관리 피드백 시스템 등으로 발전할 계획이다. 이러한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대구대학교는 “데이터로 혁신하는 대학”, DX·시시대의 대학운영 모델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 스스로 마음을 돌보다, 대학적응위기군 학생 지원을 위한 온라인 명상 프로그램 성과사례



김예주

대구한의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연구원

## 추진 배경

대구한의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재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활 적응검사를 실시하고, 적응위기군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기존 대면 프로그램의 낮은 참여율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도에는 온라인 기반 명상앱을 활용한 명상챌린지 프로그램으로 전환·운영하였다.

## 운영 내용

프로그램명	함께Haany 명상챌린지 4주		
대 상	대학적응위기군 + 재학생(선착순), 모집인원 38명		
기 간	9월19일(금)~10월 16(목), 총 4주(28일)		
장 소	줌Zoom, 카카오톡 단톡방, 명상앱(비대면)		
목 적	대학 생활		
내 용	구분	기간	주요내용
	오리엔테이션	9.19.(금)	Zoom 진행, 사전검사 실시, 미참여자 녹화본 제공
	명상 챌린지 실천	9.19.(금) ~ 10.16.(목) (4주)	38명(적응위기군: 일반학생=5:5), 주 4회 이상 명상 실천 및 앱 일기 인증, 카톡 피드백 운영
	주차별 주제		1주차 마음보기 → 2주차 몸의 감각 → 3주차 생각 알아차리기 → 4주차 긍정마음 형성
종결 및 시상식	11.14.(금)	사후검사, 소감문 작성, 시상(최우수·우수·장려·입선)	

## ▣ 프로그램 운영성과

명상업을 활용한 명상챌린지 프로그램은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율적 참여 방식은 학생들의 접근성과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사전·사후 검사 결과, 5개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가 확인되었다. 특히 우울 45% 감소, 불안 44% 감소, 스트레스 19% 감소로 심리적 안정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삶의 질(만족도) 20% 증가, 긍정정서 17% 증가로 정서적 회복과 자기만족도가 높아졌다.

구분	우울	불안	스트레스	긍정정서	삶의 질(만족도)
사전	10.5	7.8	28.5	25.0	19.3
사후	5.8	4.3	23.1	29.4	23.1
차이	▼45%	▼44%	▼19%	▲17%	▲20%

설문조사 결과, 프로그램 참여 동기로는 \*\*‘심리적 어려움 해결’ (50%)\*\*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주의집중력 강화’ (19.4%), ‘명상에 대한 관심’ (16.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 설문에서는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 영역으로 스트레스 완화(63.9%), 주의집중력 강화(61.1%), 불안 완화(30.6%), 우울·무기력 완화(27.8%) 등이 보고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비교과 영역 내 장기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며, 총 28명 (80.36%) 수료, 평균 \*\*만족도 9.2점 (10점 만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장기간 꾸준한 참여가 가능했던 것은 그룹별 관리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과 명상업을 활용한 온라인 참여 방식의 편리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본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량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운영의 내실과 체계성을 강화하여 질적 성과를 함께 달성하였다. 또한 대학 적응위험군 및 위기 학생 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력과 심리적 회복탄력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나아가 학생상담센터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고, 심리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생활 전반의 정서적 안정 기반을 마련하였다.

## ▣ 학생 참여후기

### 〈간호학과 김00〉

명상이 낯설고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한번해보자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시작할 때 느꼈던 우울함과 학교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점차 줄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인간관계나 학교생활로 지친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 만족합니다.

### 〈반려동물보건학과 박00〉

한달간 명상 챌린지를 하며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 복잡한 날도, 조용히 앉아 있던 날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쌓이며 나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나와 더 친해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 시사점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명상업을 활용한 비대면 명상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대학생활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전 신청자 수가 모집 인원의 \*\*295%\*\*에 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수업 일정이 빡빡하여 기존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웠던 한의예과 및 간호학과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 장벽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 방식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캠퍼스별·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을 강화하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정규 운영 프로그램으로 확대 또는 추가 개설하여 더 많은 학생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학생상담센터

## 함께Haany, 마음챙김 영상 챌린지

**일시** 9월 19일(금)~10월 16일(목), 4주 운영  
※ 9월 19일 15:30, 실시간 Zoom 연선회 진행

**장소** 줌 Zoom, 카카오톡 그룹방 (비대면)

**대상** 대구한의대학교 재학생 36명 대상  
※ 대학생생활응용점서 실시자 우선

**진행** "마보" 앱 이용 및 오픈채팅방

**내용** 4주 동안 영상 앱과 카카오톡 그룹방에서 영상 활동 수행  
○ 참가자는 영상 촬영 통해 하루 10분 영상  
○ 그룹채팅방에서 영상 콘텐츠를 공유하고 영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혜택** 마보앱 사용권 무료지원  
수료기준에 따라 학습지원 장학금 차등지급(최대15만원)

**문의** 대구한의대학교 학생상담센터 ☎ 819-1223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 교육의 디지털 전환 선도 에듀테크로 완성하는 혁신교육



주정빈

대구의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연구원

## 추진 배경

4차 산업혁명과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고,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통적인 지식 전달 중심에서 학습자 주도 및 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교수의 혁신 수업 실천을 위한 구조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AI 및 에듀테크 워크숍 운영 횟수 및 참여 교원은 매년 향상하고 있으나, 수업 적용 교원은 10.3%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워크숍 교육이 실제 수업 적용과 개선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체계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구한의대학교 교수학습센터에서는 에듀테크 기반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교수자와 학습자가 기술을 활용한 학습 혁신을 경험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교수자는 데이터 기반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이 가능해지고 학습자는 시·공간 제약 없이 몰입도 높은 학습을 경험하는 미래형 학습 환경이 조성되었다. 본 성과 사례들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구축된 에듀테크 기반 교수·학습 혁신 추진 과정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1)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AI 학습튜터링(AI Learning Tutoring)’ 프로그램을 통해 AI 학습플랫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패턴을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또한 ‘AI Talk Talk’ 프로그램에서는 지역 산업 관계자를 초청하여 지역사회 문제와 문화 자원을 주제로 한 AI-에듀테크 기반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실무적 사고력과 디지털 융합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2)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교수역량강화 부문에서는 AI·에듀테크 기반 수업 설계 및 운영을 희망하는 교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교수법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였다. 본 컨설팅은 교수학습 혁신과 교수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Step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단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One-Stop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연간 100명 이상이 교수역량 진단에 참여하였으며, 에듀테크 관련 교수법 컨설팅은 50개 교과목 이상에 적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매년 상승하여 2025년 기준 평균 4.7점 이상을 기록하였다.



이 외에도 교수-학생 간 실시간 소통과 챗봇 활용이 가능한 AI 학습플랫폼을 제공하여, 에듀테크 기반 교수·학습 문화가 대학 전반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수법 워크숍에서는 교육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실제 강의 적용 기반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및 생성형 AI 활용 사례,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 AI 리터러시 교육 등을 함께 다루며, 교수자들이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향후 발전시켜야 할 역량을 함께 고민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특강과 활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공유·확산되고 있으며, 교수학습센터는 이를 통해 교수자들이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탐색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 향후 계획

교수학습센터에서는 에듀테크 기반 교수·학습 혁신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교수자들이 실제 수업 현장에서 에듀테크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Notion AI, Synthesia, Gradescope, Google Analytics for LMS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컨설팅, 콘텐츠 제작, 학습데이터 시각화 분석 및 피드백 등 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교수자의 혁신적인 수업 실천을 촉진하고자 한다.

둘째, AI 및 데이터 기반 학습분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 패턴과 성취도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학습 피드백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셋째, 에듀테크 활용 공동체(Teaching Community)를 구성하여 교수 간 경험 공유와 우수사례 확산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육 혁신의 성과가 단기적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고 대학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에듀마스터제 도입을 점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가 기술 친화적인 학습 문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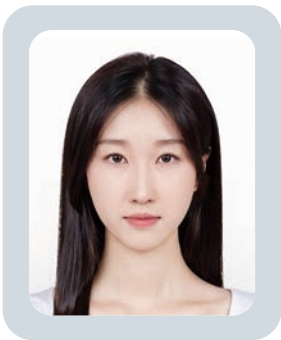
앞으로도 대구한의대학교 교수학습센터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핵심 조직으로서, 에듀테크 기반 교수·학습 혁신생태계의 내재화와 질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 AI 기반 전자자원 서비스 도입을 통한 연구·학습 혁신

## - DBpia AI 국내 대학 제1호 도입 등 생성형 AI 서비스 운영 성과 -



나예슬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  
팀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기술의 확산은 대학도서관의 학습·연구지원 서비스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도서관은 전통적인 자료 제공을 넘어,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는 지식 기반 혁신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전자도서관 플랫폼에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학술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 첫 단계로 이용 의존도가 높은 전자자료 중심의 생성형 AI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통합검색, 전자저널 원문 이용, 글로벌 연구 동향 파악 및 분석 등 학술정보 활용 전 과정에 걸쳐 탐색 효율과 연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최신 AI 기술이 접목된 전자자원을 통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정보를 균형 있게 탐색하고 핵심 자료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 DBpia AI(국내 대학 1호 도입) 등 생성형 AI 기반 전자자원 서비스 도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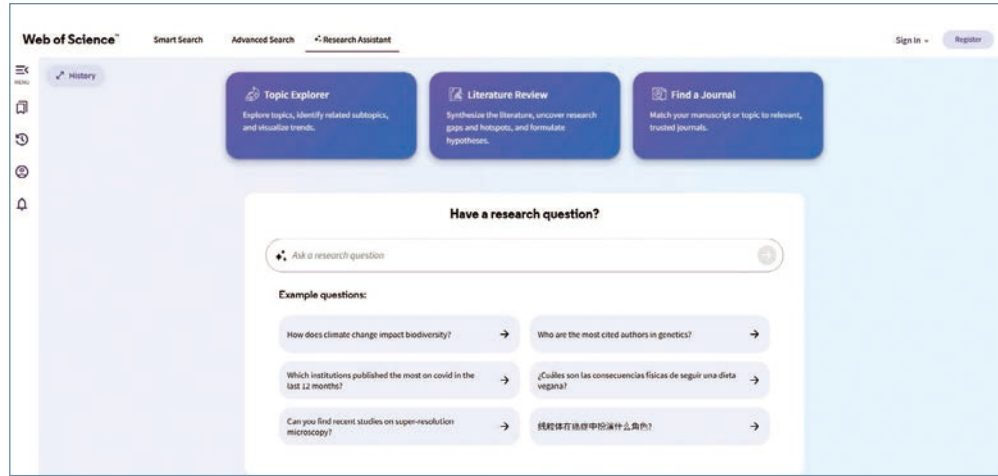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은 2025년 5월 DBpia AI를 국내 대학 제1호로 정식 도입하여 AI 기반 학술정보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2025년 7월부터는 글로벌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인 Web of Science RA와 SCOPUS AI에도 생성형 AI 기능을 결합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 중이다. 이 서비스들은 자연어 처리, 논문 요약, 연구 주제 분석, 다국어 지원 기능 등을 통해 학습 및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학술정보 탐색의 편의성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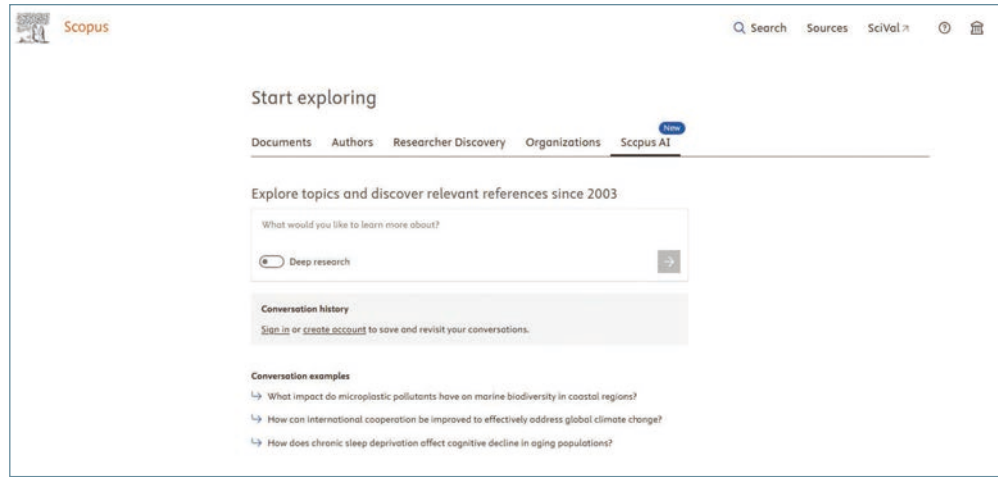
특히, 전 주제 분야를 포괄하는 국내·외 주요 데이터베이스에 AI 기능을 결합하여 학술정보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AI 기능이 결합된 각 전자자원별 특징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자원명	공급사	주요 내용
DBpia AI	누리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DEA) 생성형 AI 기반 주제·목차 추천 및 논문 수집 지원</li> <li>• (AI부어) 목차·연구방법 기준 요약, AI 채팅 제공</li> <li>• (AI검색) OA 포함 2억 6천만 건 원문 기반 지능형 검색</li> </ul>
Web of Science RA	Clariv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atGPT 4.0기반의 AI 기술 연동으로 Web of Science 데이터 분석 지원</li> <li>• (검색) 자연어/다국어 검색 및 검색 결과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약 및 답변이 포함된 질문 기반 검색, 주제별 문서 검색 등</li> </ul> </li> <li>• (Liberature review 2.0) 선행연구 탐색 및 고찰 고도화</li> <li>• (시각화) 다양한 시각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ocuments Over time graph : 질문 기반 핵심 주제별 연구 트렌드 그래프</li> <li>- Topic Map : 주제별 상관관계를 map, table 형태로 시각화</li> <li>- Top Authors : 해당 주제 우수 연구자 정보 제공</li> </ul> </li> </ul>
SCOPUS AI	Elsev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성형 AI 기반의 SCOPUS 데이터 분석 지원</li> <li>• (검색) 자연어/다국어 검색 및 검색 결과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질문별 요약 및 요약 정보에 따른 참고문헌 안내</li> </ul> </li> <li>• (Deeper query exploration) 검색 기반 추가적인 탐색 기능 제공</li> <li>• (시각화) 검색 결과에 대한 시각적인 매핑, 포괄적 개요</li> <li>• (Emerging Theme) 최근 2년간 연구 트렌드 탐색 및 관련 연구 가설 제시</li> </ul>

The screenshot shows the DBpia AI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with the DBpia logo and navigation links. Below the search bar, there are several promotional cards for AI search services, including 'AI 검색' and 'DBpia 인기'. A sidebar on the right contains a login section for Dongguk University users and a section for institutional subscriptions. The bottom of the page has a dark blue header with the text 'DBpia AI'.



Web of Science RA



SCOPUS AI

### ■ AI 기반 전자자원 서비스에 대한 높은 관심과 만족도 확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생성형 AI 기반 전자자원 서비스 도입에 앞서 시범서비스를 운영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통해 초기 인지도 제고와 이용 확산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였다. 정식 도입 이후에는 학부생부터 전문 연구자에 이르기까지 학술정보 검색 효율을 향상시키고 연구 생산성과 디지털 정보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 1) 높은 이용자 만족도 및 신규 이용자 유입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SCOPUS AI(4.4점), Web of Science RA(4.2점), DBpia AI(4.1점)로 모두 5점 만점 기준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AI 서비스 도입 이후 기존 비이용자의 신규 유입이 확인되었으며, 다수의 응답자가 '연구 주제 아이디어 도출과 참고문헌 탐색 과정의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했다.

### 2) 폭발적인 초기 이용 실적 (DBpia AI)

국내 대학 1호로 도입된 DBpia AI는 시범서비스 첫 달인 2025년 5월 한 달간 13,206건이 이용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방학 기간 중 이용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음에도 6개월간 총 49,312건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활용도를 보였다.

#### ▶ 2025년 DBpia AI 이용 통계(건)

구분	'25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IDEA	2,503	1,660	1,192	458	1,802	1,559	9,174
시뷰어	5,764	2,872	1,841	1,375	4,307	5,860	22,019
시검색	4,939	2,981	1,028	904	4,156	4,111	18,119
합계	13,206	7,513	4,061	2,737	10,265	11,530	49,312

### 향후 계획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은 향후에도 주요 전자저널과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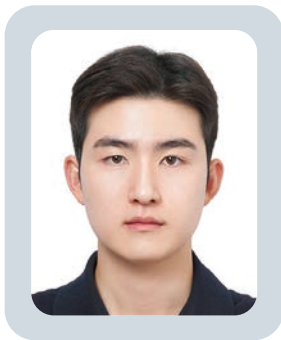
또한 도서관 홈페이지 내에 전자자원 AI 서비스 전용 페이지를 신설하여 사용 방법, 최신 업데이트 정보, FAQ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이용자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정기 교육을 운영하여 학내 구성원의 AI 활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 핵심역량 갖춘 동국108리더스, 신입생 성장 이끌다

## - 열린전공학부 멘토링(CA) 프로그램 운영 성과 -



김시현

동국대학교  
 학생역량개발팀  
 팀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동국108리더스’는 동국대학교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5대 핵심역량(창의융합·디지털·자기개발·소통협력·글로벌시민)을 갖춘 차세대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역량 개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문제해결 프로젝트, 리더십 교육 등 ‘집중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기획력, 창의성, 사고력을 갖춘 ‘화쟁형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본 프로그램은 2007년 출범 이후 2025년 현재 19기가 활동 중이며, 매년 3학년 재학생 중 잠재적 리더 역량을 갖춘 약 108명을 선발해 1년 반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3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대기업·대학·공공기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핵심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25학년도부터는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전공자유선택제로 선발한 열린전공학부 신입생들의 멘토(CA, Campus Assistant) 역할을 수행하며 학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	리더십·역량강화 활동	신입생 멘토(CA)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름방학 농촌 봉사활동</li> <li>겨울방학 해외 봉사활동 &amp; 해외 리더십 연수</li> <li>4.19등반대회 ESG 캠페인 (쓰레기 줍기, 분리수거 피켓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더십 트레이닝 캠프</li> <li>템플스테이 및 연등행렬</li> <li>108리더스의 밤</li> <li>조별 프로젝트 활동 (학교 개선점, 발전방안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린전공 신입생 OT 지원</li> <li>열린전공 신입생 새터 기획</li> <li>열린전공 신입생 멘토링 (학교생활적응 지원, 전공 선택 조언 등)</li> </ul>

## ▣ 학생 주도적 현장 경험을 통해 차세대 리더로 성장

동국108리더스는 학생들이 리더로서의 실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 주도형 현장 경험에 중점을 둔다. 학생들은 사회공헌 활동, 학교 행사 참여, 신입생 멘토링, 자체 프로젝트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캠퍼스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간다. 특히 이러한 모든 활동은 구성원 간의 협업을 기반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설계되어,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24년) 18기 캄보디아 해외 봉사활동



(‘25년) 4.19등반대회 ESG 환경 캠페인

### III. 전공자율선택제 신입생 멘토(CA)로서의 역할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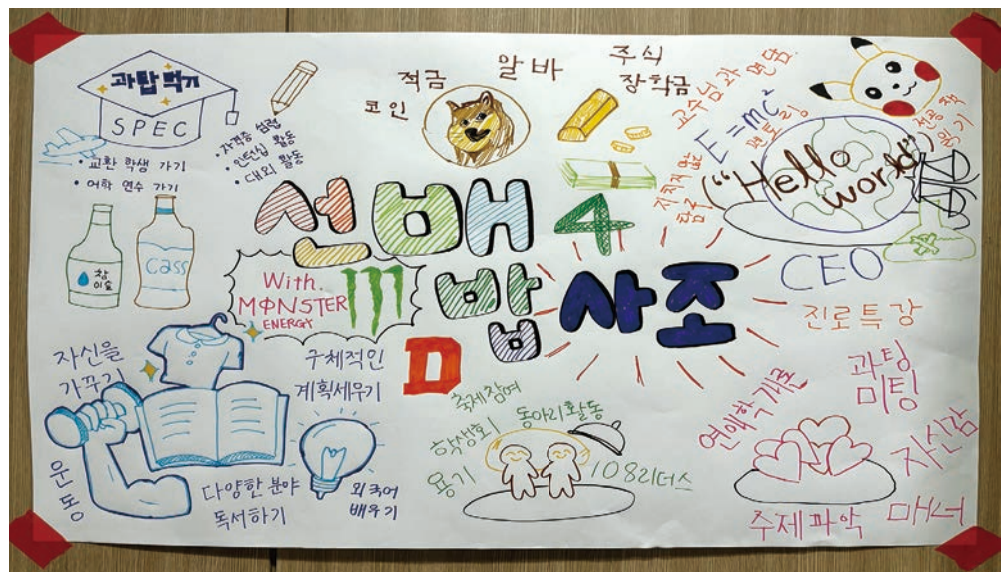
2025년도 108리더스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변화는 ‘열린전공학부’와의 연결이다.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신설된 열린전공학부는 학문 경계를 허문 무전공 학부로, 직속 선배가 없는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 지원이 중요한 과제였다. 이에 동국108리더스가 신입생들의 선배·멘토 역할(CA)을 맡아 지원하게 되었다. 동국108리더스는 체계적인 멘토링 운영을 위하여 선발 일정을 기존 학기 초에서 11월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19기 학생들은 겨울방학 동안 팀빌딩 프로그램과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직접 기획·운영하며, 학기 시작 전에 본격적인 멘토링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개강 이후에는 열린전공학부 신입생들의 희망 학과 수요 조사를 반영해 맞춤형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약 100여 명의 멘토가 1:1 또는 1:2 방식으로 매칭되어 지원하였으며 멘토링은 1학기에는 학교생활 적응을, 2학기에는 전공 선택과 탐색지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CA 멘토링 활동은 신입생들의 빠른 적응과 소속감 형성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고, 멘토로 참여한 108리더스 학생들에게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상호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26학년도에는 2025년도의 운영 경험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멘토링 체계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108리더스 열린전공 신입생 새내기 새로배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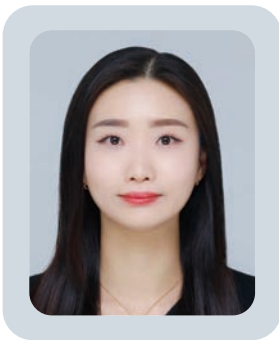


108리더스 열린전공 신입생 멘토링 프로그램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 책과 피크닉(Book + Picnic)을 결합한 북크닉(Booknic) 운영 사례



이해인

동아대학교  
학술정보서비스과  
담당

### 추진배경 및 목적

동아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재학생들의 학문적 기초소양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독서 프로그램은 전문성 기반의 교육연계 비교과 프로그램과 흥미 기반의 독서 장려형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다.

그 중 '북크닉(Booknic)'은 책과 피크닉(Book+Picnic)을 결합한 독서 장려형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야외에서 독서와 휴식을 함께 즐기며 독서의 즐거움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기획되었다.

기존 도서관 이용 환경의 정적이고 고정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색다른 방식의 독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동시에 독서 일지 작성을 통한 문해력 및 글쓰기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운영 내용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사전에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초기에는 팀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1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였고, 진행 당일에 현장 접수까지 받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행사 당일, 기존에 대출한 도서를 가져오거나 도서관 소장 도서를 1권 이상 대출하고 도서관에서 미리 준비한 피크닉 세트(돗자리, 방석, 미니테이블, 스피커, 감성거울, 조화 등)와 간단한 간식을 제공받았다.

프로그램 진행 시간 동안 학생들은 캠퍼스 내 뉴턴공원에서 자유롭게 피크닉과 독서를 즐겼다. 참여자들은 돗자리 및 미니테이블을 활용하여 각자의 방식으로 독서에 참여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여유롭고 참여도 높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피크닉 세트의 감성거울, 조화 등을 활용하여 SNS에 활발하게 참여 인증 사진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피크닉과 독서를 마친 후 각자가 읽은 도서에서 인상 깊은 문장과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담은 독서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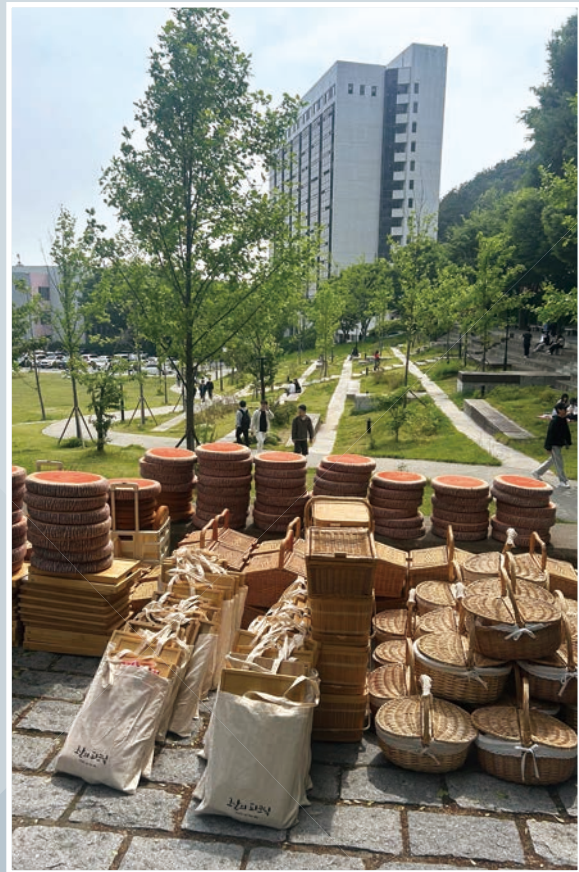
제출된 독서일지는 심사를 통해 우수 일지를 선정하였으며, 총 29팀(60명)에게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또한 모든 참여자에게는 비교과 포인트를 지급하였다.



북크닉 참여 사진



북크닉 참여 사진



피크닉 세트 사진



운영 부스 사진

###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책을 보다 흥미롭게 접하며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었다. 또한 정적인 독서 방식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책을 읽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독서 경험을 누릴 수 있었다.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는 평균 4.6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많은 학생들이 “따뜻한 날씨에 야외에서 독서를 할 수 있어 좋았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힐링과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처음 운영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향후에는 더 다양한 시간대와 참여 기회를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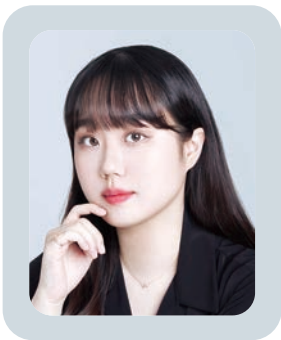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휴식과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며, 캠퍼스 속 새로운 독서문화 확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북크닉 외에도 학생들의 학문적 기초소양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할 예정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런치 콘서트



**조혜은**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강사

## ■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동아대학교 음악학과는 교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보다 가까이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동아대학교 목요 런치 콘서트’를 기획하였다.

본 콘서트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진행되며, 실용음악 보컬, 성악, 클래식 피아노 등 클래식과 실용음악을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구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손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 향유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학과 내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함께 공연을 기획하고 참여함으로써 상호 교류와 협력의 경험을 쌓고, 예술가로서의 성장과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공연 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예술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교내 구성원 모두가 캠퍼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흐르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 사업추진에 따른 교내기여

본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음악 공연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교직원의 점심시간에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얻었으며, 추가 공연 요청이 이어져 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는 교직원 복지의 한 형태로서 문화예술을 통한 새로운 휴식의 장을 제공한 사례로, 점심시간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적 풍요로움을 더하였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학교 외부 공연 초청이 이루어지는 등 동아대학교 음악학과와의 위상 강화로 이어졌으며, 학생들이 공연 세팅부터 전체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창의성과 혁신성이 증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 프로그램 참여 학생 후기

### 〈음악학과 노태원〉

런치콘서트를 하면서 음악학과에서 공부하고 실습하는 내용으로 실제로 동아대학교 학우, 교수님, 임직원 분들 앞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실전성을 기르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야외 공연으로 진행하다 보니 실내 콘서트홀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야외의 제한사항과 변수에 대해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연주자들이 아무리 잘해도 음향을 잡아주고 세팅해주는 사람들의 역량이 부족하면 완벽한 공연과 완성도 있는 공연이 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외적으로는 점심시간에 콘서트를 함으로써 공원에 모여서 이야기하거나 지나가며 웃으며 노래를 듣고 가시는 분들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뿌듯했다.

더불어 음악학과를 홍보하고 알리기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서 클래식과 실용음악 학우들이 많은 경험과 배움을 얻어 가면 좋겠다.

## ▣ 사업 진행 소감

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음악학과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팀워크가 강화되었으며, 학과 내부를 벗어난 외부 무대 경험이 학생들의 자신감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기존에 다소 분리되어 있던 클래식과 실용음악 전공 학생들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며 전공 간 유대감이 형성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또한 런치 콘서트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양질의 문화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음악 공연 접근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교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추가 공연이 성사되는 등, 점심시간을 활용한 문화 복지 의 새로운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공연예술문화의 인프라 확산과 캠퍼스 내 예술 향유 기반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포스터 사진



연주사진 1



연주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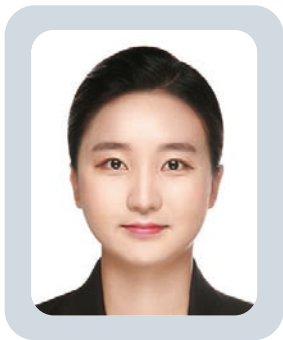


연주사진 3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 동의대학교, AI 혁신 대학 비전 발표 전국 사립대 최초 구글 레퍼런스 대학 도전



강도희

동의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선임연구원

동의대학교는 11월 13일 '동의 AX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며 AI 기반 대학 교육체제 전환과 미래형 콜라보 교육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번 행사는 Google for Education 파트너사인 에듀벤처와의 협력 속에서 진행됐으며 구글 한국·몽골 총괄 소피 배 대표를 비롯해 동의대 주요 보직자 약 30여 명이 참석해 대학 혁신 방향을 공유했다.

행사에서 한수환 총장은 “대학은 지식 전달을 넘어 AI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열린 학습공동체로 변화해야 한다”며 Google과의 협력을 통해 모든 학문에서 AI 융합을 확산시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전경란 교학부총장은 AX 기반 교육혁신과 디지털 전환, 글로벌·지역 리더 양성, 인간 중심의 AI 가치 실현 등을 담은 비전 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실행 조직으로 'AI디지털교육혁신센터' 설립이 추진되며 교육 체제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주영 교육혁신원장은 그동안 구글과의 협업을 통해 구축한 디지털 협력 학습환경과 교원·학생 대상 Google Certified Educator 국제자격 취득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소개하며 향후 1년 내 전국 사립대 최초로 Google Reference University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의대학교와 에듀벤처 간 'Google for Education 및 Google AI(Gemini) 기반 교육 협력' MOU도 체결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AI 기반 교수법 워크숍, Gemini 활용 교육, 공동 연구 및 커리큘럼 개발,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피 배 한국·몽골 총괄은 “구글의 교육용 도구와 AI 기술이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과 교직원의 업무 효율을 높일 것”이라며 지속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같은 날 지천관 앞에서는 AI와 콜라보 교육 혁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Google for Education' 부스가 운영됐다. 약 25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한 이번 부스에서는 Google 계정 생성, 도구 사용법 안내, 노트북과 대형 모니터를 활용한 퀴즈와 게임, 3D 입체 조형물과 Instagram 스타일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여자들에게는 기념품도 제공되어 즐거운 경험을 더했다.

이번 부스 운영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AI 기반 교육혁신과 콜라보 교육체제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직접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참여자들은 AI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미래형 교육 환경을 경험하며 대학이 추구하는 혁신 비전과 새로운 교육 표준을 이해할 수 있었다.

교육혁신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AI 기반 교육 혁신 문화 확산과 Google과의 협력 모델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AI-Powered Dongeui'라는 비전 아래, AI·디지털 중심의 미래 대학 모델 구축과 교육·연구·행정 전반의 혁신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동의 AX 비전 선포식



정주영 교육혁신원장의 '교육혁신 로드맵' 발표



Google for Education 홍보 부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 전공 나답게 선택하자! '전공자유선택제' 재학생을 위한 수원대학교 '2025 전공박람회' 성공적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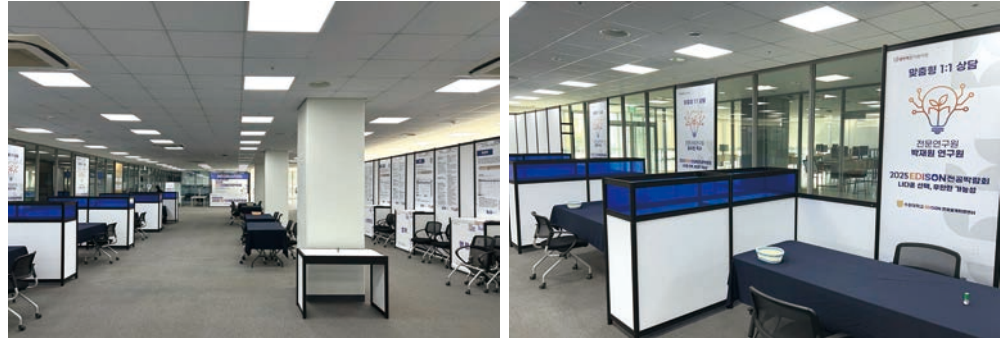
이정범

수원대학교  
 EDISON전공설계지원센터  
 선임위원

## ▮ 학생 주도 전공 설계 혁신 현장

수원대학교 EDISON전공설계지원센터(센터장 권민 교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5학년도 부터 시행된 '전공자유선택제'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8일(화) 미래혁신관에서 '2025 전공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자유전공학부 1학년 학생들이 전공 선택과 진로 설계 과정을 직접 체험 하며 주도적으로 학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박람회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이 각 학과의 전공 특성과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참여 교수진과 재학생 멘토가 전공 교육의 방향과 진로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학생들이 전공 선택에서 느끼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학과·학생·교수진 간 유대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2025 EDISON 전공박람회
프로그램 운영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학과 및 전공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li> <li>모든 학과의 전공 특성과 정보를 제공하여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합리적인 전공 선택 지원</li> <li>교수진과 선배들의 생생한 정보 전달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전공 선택의 불확실성 해소</li> </ul>
프로그램 운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문사회융합대학 10개 전공 및 타 단과대학 3개 전공의 홍보 부스 설치·운영</li> <li>교수진과 선배들이 각 학과 부스별 상주하며 자유전공 학생 대상으로 전공 안내 및 질의응답 진행</li> <li>전공별 특징점, 커리큘럼, 진로 사례를 중심으로 자유전공학부 학생 맞춤형 상담 제공</li> <li>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관심 전공을 직접 탐색하며 부스별 참여 스탬프 미션 등 체험형 참여 방식 도입</li> </ul>
프로그램 운영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공 선택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학생 주도적 설계 역량 강화</li> <li>전공 및 진로 탐색 지원을 통한 학생 몰입도 향상</li> <li>학과별 홍보 효과 증진 및 학과~학생 간 교류 활성화</li> <li>자유전공 학생들의 학과 정착율 향상 및 중도 탈락 방지 기여</li> </ul>

## ▮▮ 맞춤형 안내와 체험형 프로그램의 융합

이번 행사에는 인문사회융합대학 10개 전공과 타 단과대학 전체 전공 등 모든 전공 부스가 마련되어, 교수진과 선배 멘토가 상주하며 자유전공학부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안내와 질의응답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주요 교과목과 학과별 특성, 졸업 후 진로 방향 등 다양한 정보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습득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 선택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생 참여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스탬프 투어 미션’을 통해 학생들이 여러 전공 부스를 순회하며 전공을 적극 탐색하도록 유도했으며, EDISON전공설계지원센터 연구원이 진행한 ‘1:1 전공·진로 상담’과 ‘MOST 전공계열 탐색검사’는 학생 개개인의 성향과 적성에 맞춘 진로 설계를 돕는 실질적 프로그램으로 높은 호응을 받았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은 학생이 전공 선택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행사 종료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 학생이 “전공별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교수님과 선배 멘토의 조언이 전공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맞춤 상담으로 진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립할 수 있었다”고 답하며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전공 선택에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이 이번 박람회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을 발견하고 진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 ▮▮ 학교 - 학생이 함께 만드는 성장의 장

EDISON전공설계지원센터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의 전공 선택 역량과 진로 설계 능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더불어 전공별 홍보 효과가 증대되고 교수진과 학생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학내 공동체 문화가 강화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 같은 성과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전공 정착률 향상과 중도탈락 예방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EDISON전공설계지원센터 권민 센터장은 “이번 전공박람회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공과 진로를 주도적으로 탐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전공·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들의 주도적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전공박람회를 넘은 대학혁신의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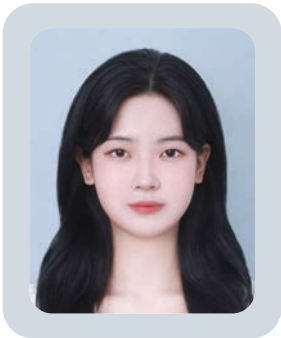
이번 박람회는 수원대학교 전공·진로 지원 체계 고도화의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 꼽히며, 대학혁신지원사업 핵심 가치인 '학생 중심 교육 혁신'을 실현한 모범 사례이다. 학생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은 다른 대학에서도 벤치마킹 가능한 우수모델로 평가받으며 지속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DISON전공설계지원센터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 전공 설계와 진로 탐색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학내 전공 정보 통합 플랫폼 및 전문 상담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여, 모든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학업과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 혁신을 선도할 예정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 찾아가는 전공 맞춤형 특강 프로그램



김지연

신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직원



“교실에서 배운 지식이 진짜 나의 진로로 이어지다,  
그 시작은 바로 찾아가는 목요 맞춤 특강”



### ▮ 학습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학과 맞춤형 특강

신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전공역량 강화와 학습동기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목요 맞춤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전공 고유의 필요에 맞춘 오프라인 특강이다. 학과가 희망하는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면 해당 주제에 적합한 전문 강사(졸업 선배·현장 전문가·교수 등)를 매칭하여 맞춤형 강의를 제공한다.

### ▮ 프로그램 핵심 포인트

- 첫째, 학과별 학생들의 진로 단계와 학습 상황에 눈높이를 맞추어 운영된다.
- 둘째, 학과가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 셋째, 전공 이해부터 진로 탐색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성장형 프로그램이다.

### ▮ 프로그램 운영 성과

유아교육과, 항공서비스학과 등 15개 학과 9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사 임용 특강’, 항공서비스학과는 ‘객실 승무원의 하루&실습’등을 통해 현장감 있는 실습형 수업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실제 직무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 “강사님의 생생한 경험담이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했다.” 등의 후기를 남겼다.

또한 MBTI 기반 특강은 유료 검사지를 활용한 정식 검사와 학과 맞춤 해석·피드백으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공 관련 실무이해도 향상’ 및 ‘진로 탐색에 도움’ 항목에서 92%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는 등 참여학과의 재신청 비율도 높아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입증하였다.



학생들 후기 워드 클라우드

## 그 외에 이런 주제로 함께 했어요

현장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학생들은 전공과 진로를 잇는 실질적인 경험을 쌓았다. 강의 후에는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져 학과 교수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참여 학과	특강 주제	현장 스케치
식품영양학과	MBTI를 활용한 소통전략 세우기	
치위생학과	임상실무적응과 역량강화 DAY!	
국어교육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사의 역량	
시각디자인학과	AI 시대의 시각디자인과 마케팅	
보건행정학과	슬기로운 대학생활을 위한 의사소통 스킬	
역사교육과	역사교사는 역사수업을 어떻게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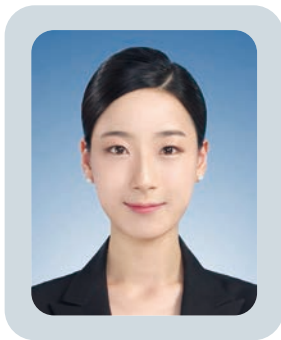
## 2025년 더 많은 학과와 함께합니다

2025년도에는 1학기 7개 학과 252명, 2학기에는 9개 학과 328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진행 중이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학생 개개인의 전공 학습과 진로 설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과 현장을 연결하는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 “창업동아리에서 실리콘밸리까지!” 교내 창업 프로그램 성과 확산 사례



박수정

을지대학교  
진로 취·창업센터  
담당

을지대학교 진로 취·창업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설정과 취업, 창업 준비에 방향성을 정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시로 전문 상담사들이 진로 및 취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역량진단검사, 진로 멘토링, 전문가 초청 특강, 전공진로 박람회, 기업탐방,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등 학생들의 미래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는 다방면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창업동아리(슬기로운 자율동아리 생활)’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프로그램의 성과 확산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 교내 창업 프로그램 운영 내용: 「창업동아리(슬기로운 자율동아리 생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창업동아리(슬기로운 자율동아리 생활)」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창업 관련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진로탐색 및 창업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업동아리를 결성한 학생들은 1년간 정기적 동아리 활동 및 교내 창업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하며 역량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활동들은 취업 준비와 진로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도전정신과 창업역량을 키우며 새로운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창업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이 대회를 통해 창업아이템 기획, 시장성 검토, 고객 분석 등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아이템 발표를 경험하며 실제 창업 준비 과정을 체감할 수 있었다.

총 43팀(162명)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는 예선을 거쳐 13팀이 본선에 진출했고, 본선에서는 창업아이템 발표와 현장심사가 이루어졌다. 우수한 아이템으로 평가받은 팀들에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시상을 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사고, 협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학습 동기도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다.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시상식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최우수상팀 발표

A학생(미용화장품과학과)은 “아이디어를 직접 구상하고 심사위원들께 평가받을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B학생(의료공학과)은 “아이템 발표 준비를 하면서 아이টে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더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라며, 경진대회가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음을 밝혔다.

## 교외 연계 성과 확산

진로 취·창업센터에서는 혁신적 사고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창업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 사업에 연계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창업동아리(슬기로운 자율동아리 생활)'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팀들에게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주관하는 '청년창업 아이디어이션 4.0' 사업에도 참가해 볼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참가신청 서류를 준비할 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확인하고, 세심하게 지원하는 등 열정을 가지고 도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6팀(15명)이 참가하여 3팀(7명)이 최종 선발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해당 사업은 혁신기술(AI, XR, 3D 등) 아이디어 고도화 및 실행 기반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교내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에서 발표했던 창업아이템을 바탕으로 혁신기술 분야 전문 창업 교육 및 모의 IR피칭 등 아이디어 고도화 코칭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으며 창업아이템을 더욱 발전시켰다.

또한,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에서 8월 18일 ~ 8월 24일 동안 진행된 '아이디어이션 투어'에 참가하여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현직자 강연을 들으며 글로벌 시장 동향을 현장에서 체득 하였다. 아울러, UC버클리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등 팀 프로젝트와 협업을 통해 문제 해결력과 국제적 소통 능력을 함양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시장 진출 단계로 발전시키는 실질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는 개인적 성장뿐만 아니라 본교 창업 프로그램의 성과 확산 가능성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교내 창업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사업으로 확장되며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청년창업 아이디어이션4.0' 창업교육 데모데이(모의 IR피칭)



‘청년창업 아이디어이션4.0’ 아이디어이션 투어-UC버클리



‘청년창업 아이디어이션4.0’ 아이디어이션 투어-구글 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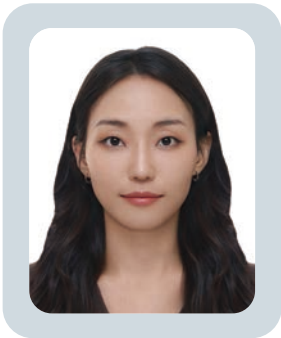
### 향후 계획

진로 취·창업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폭넓은 경험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실전형 창업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여, 학생들의 잠재력을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진로·취업·창업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며, 학생들이 미래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꾸준히 다질 것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홍보데이 “이그와트와 혁신의 방” 개최



임정민

이화여자대학교  
미래혁신센터  
대리

## 추진배경

이화여자대학교 미래혁신센터는 학생들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쉽고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 중심의 홍보형 축제를 기획하였다. 단순 홍보 부스 운영이나 안내 중심의 행사를 넘어, 스토리텔링과 세계관을 결합한 몰입형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핵심 목표였다. 특히 올해는 영화 해리포터 세계관을 차용한 ‘이그와트(이화 + 호그와트)와 혁신의 방’을 행사 부제로 설정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법 교과목’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등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업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 프로그램 개요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홍보데이’는 2025년 11월 3일(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화여자대학교 ECC 이삼봉홀에서 진행되었다. 미래혁신센터를 비롯해 교육기획팀, 사회봉사팀, 국제교류팀, 인재개발원, 기업가센터 등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총 6개 부서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재학생 서포터즈 “퓨처포터 12기”가 함께 참여하였다.

행사장은 마법학교를 연상시키는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마법사 신문 콘셉트의 포스터, 랜덤으로 배정되는 기숙사별 입장 티켓, ‘이그와트 급행열차 승강장’ 포토존 등을 활용해 세계관 몰입도를 극대화하였다.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홍보데이 행사장 입구



기숙사 컬러별 입장 티켓

각 부서는 대표 프로그램을 교과목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다.

순번	부스명	담당부서	프로그램
1	도전 설계 마스터학	미래혁신센터	도전학기제
2	TELOS트랙 개론		TELOS트랙
3	E-Badge 제작 실험실		E-Badge(디지털 배지)
4	전공 유연 변신술	교육기획팀	마이크로전공, 자기설계 모듈 교과목
5	나눔의 주문학	사회봉사팀	이화봉사페스티벌 - 이화인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6	글로벌 아카데미 교류학	국제교류팀	EWHA-HUAP, 교수인솔 해외학습 프로그램 등
7	빛의 커리어 개척술	인재개발원	IMPACT 기반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8	창업가 육성학	기업가센터	MASTERS 기반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은 입장 시 수령한 '이그와트 비밀지도'를 참고하여 관심 있는 부스를 방문하고 프로그램 안내를 들은 후, 담당자와 1:1로 상담하며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스에 참여한 학생들은, 'EWHA OWL(Outstanding Ways of Learning) 성적표'에 'O(Outstanding)' 표시를 받을 수 있었다. 세 개 이상의 부스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Master of Innovation' 인증서가 수여되었다.



이그와트 비밀지도, EWHA OWL 성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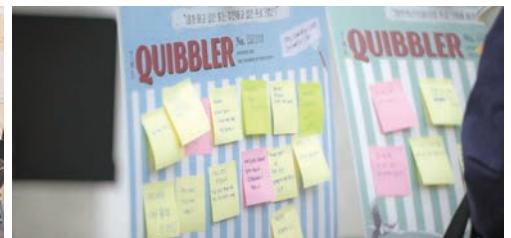


프로그램 홍보 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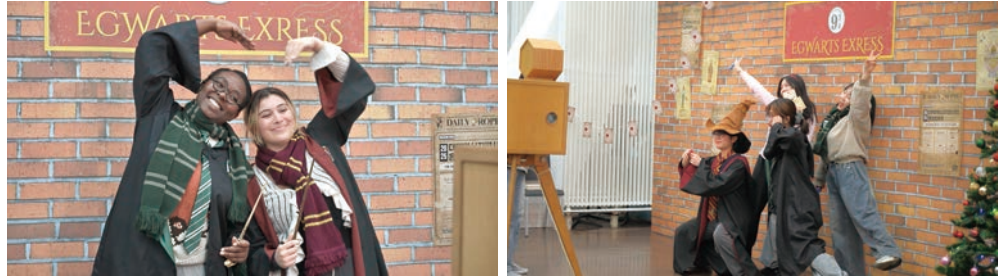
'퓨처포터 12기' 부스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퓨처포터 활동에 대한 안내 및 UV펜으로 숨겨진 본교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체험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이그와트 급행열차 승강장' 콘셉트로 꾸며진 포토존에서 세 컷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으며, 마법사 소식지 콘셉트의 QR 포스터를 통해 미래혁신센터 인스타그램 계정을 홍보하는 활동도 함께 이루어졌다.



퓨처포터의 설명을 듣고 있는 학생들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의견수렴 진행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 중인 학생들

휴게 공간에서는 입장 시 수령한 기숙사별 컬러의 패브릭 입장 티켓을 와펜, 스티커, 패브릭 마커 등을 활용해 키링으로 꾸밀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마법사 세계관에서 모티브를 얻은 다과를 함께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흥미와 만족도를 높였다.



휴게공간에서 꾸미기 활동을 하는 학생들



학생들이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휴게공간



마법사 세계관에서 모티브를 얻은 다과존



### 추진성과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홍보데이 - 이그와트와 혁신의 방’에는 총 132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이화의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흥미롭고 유익한 행사였다”, “홍보데이가 더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마법학교 콘셉트를 활용한 세계관형 체험 구성은 학생들의 몰입도와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단순한 홍보 부스 운영이 아니라, '참여 → 체험 → 성취 →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프로그램 이해도 향상과 자발적 참여를 동시에 달성하였다. 행사 종료 후 수집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향후 프로그램 개선 방향도 도출되었다.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 절차와 혜택, 지원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부는 "해외 학습 프로그램 및 봉사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생겼다"고 밝혔다.

행사 전 과정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스토리 형식으로 연재되어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높였으며, 투표 기능과 댓글 소통을 통해 재학생들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이화여자대학교 미래혁신센터 공식 인스타그램(@future\_ewha)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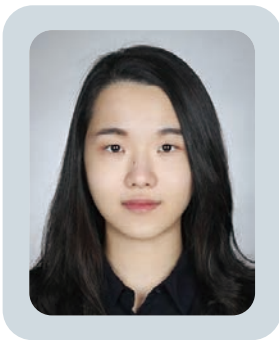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 미래혁신센터 인스타그램

미래혁신센터는 이번 홍보데이를 통해 학생들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겁게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도 교내 구성원들이 이화의 교육혁신 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체험형 홍보 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 대면 너머의 상담, 디지털로 연 마음 건강의 길



홍신영

차의과학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사원

## 추진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학생들은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의 변화와 더불어 학업, 진로, 관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심리적 부담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집중력 저하, 수면 부족, 무기력감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나아가 대학생활 부적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담자 중심, 대면상담 중심의 기존 지원 체계만으로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차의과학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디지털 기반의 심리지원 방식(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중에서도 스마트폰 기반으로 일상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음챙김 명상 앱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이 상담 센터에 대기하기 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자기 돌봄(Self-care)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앱 활용을 넘어 디지털 마음건강 관리의 생활화를 목표로, 명상 앱을 통한 정서 안정과 자기 인식 향상, 스트레스 완화를 도모하였다. 대학생활 기간 동안 학생 스스로 마음의 변화를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디지털 마음건강 관리'라는 새로운 마음건강 관리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두었다.

## 운영 내용

본 프로그램은 '마음챙김 챌린지'라는 주제로 2025년 상반기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진행 중에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4주간 매일 10여분 정도 마음챙김 앱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콘텐츠(수면 명상, 감정조절 명상, 집중력 향상 명상 등)를 활용하고, 명상 진행 후 그룹 채팅방에 명상 경험 후기를 매일 공유하며 서로를 독려했다.

### [마음챙김 챌린지 기획/운영]

프로그램 운영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프로그램 운영 내용

프로그램명	마음챙김 챌린지(4주)
기간	1차: 2025년 4월 24일~5월 23일 2차: 2025년 6월 23일~7월 18일
장소	줌Zoom, 카카오톡 그룹방(비대면)
진행	명상 챌린지 그룹 리더
대상	본교 재학생 85명(1차: 56명, 2차: 20명)
진행 내용	<p>①명상 챌린지 오리엔테이션 ②명상 챌린지 실천하기 - 참가자 ③명상 챌린지 독려하기 - 리더 ④명상 챌린지 수료식(전체 후기 나눔)</p> <p>4주 동안 명상 앱으로 명상 활동 후,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명상 활동 경험 공유 - 참가자는 명상 앱을 통해 하루 10분, 주 5회 명상을 하고, 일기 쓰기로 실천 인증 - 그룹 리더는 주별 / 일별 명상 콘텐츠를 공유하고, 참가자들의 미션 완수를 독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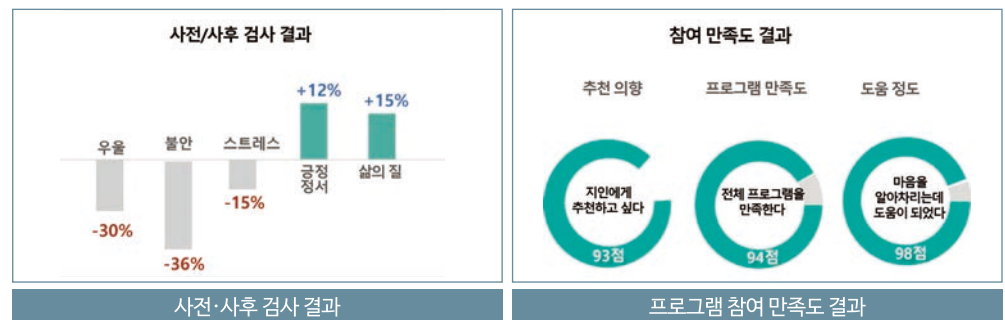
## ▣ 운영 성과

### [정서적 안정 향상]

본 프로그램은 2025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2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76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59명의 학생이 수료(수료기준: 4주간 50%이상 참여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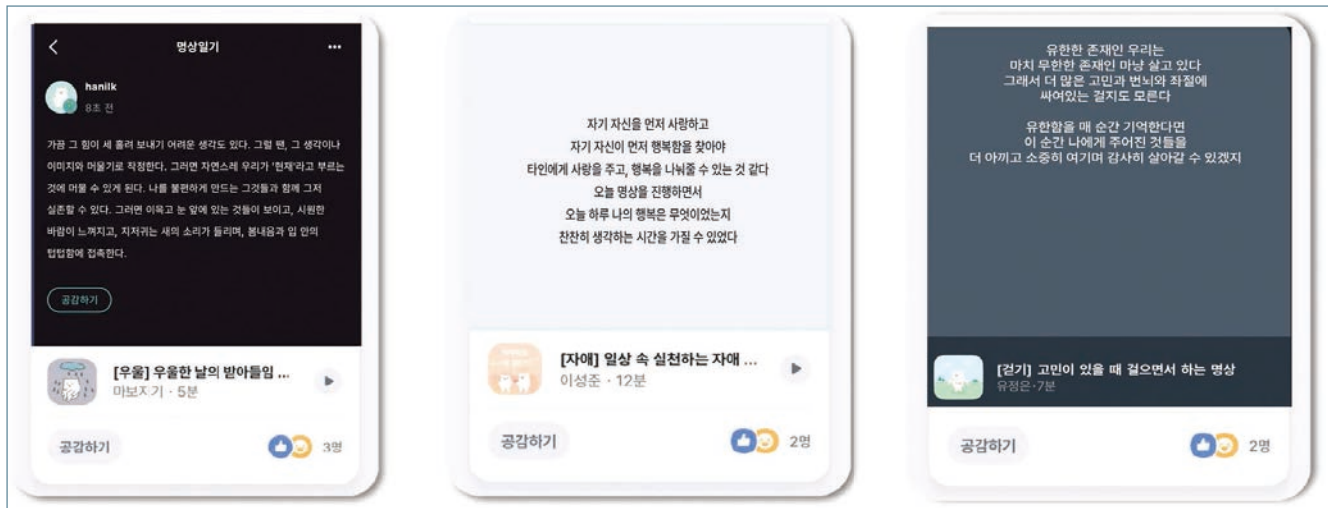
프로그램 시작 전 참여 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검사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을 마친 후 동일한 검사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체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사전사후 검사 결과 우울과 불안 감정은 약 30%이상 감소하였으며, 긍정 정서는 10%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점수(지인 추천의향, 전반적 만족도, 도움 정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사업 전체에 만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긍정적 향상 및 디지털 웰니스 문화 확산]

객관적 지표 외에 학생들의 명상 앱 참여 후기에서도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거나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었으며’,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후기들이 있어 앱을 통한 매일매일의 마음챙김이 재학생 마음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마음챙김 명상 후기



한 달 가까이 명상을 하면서 현재 내 감정과 상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성찰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나를 더 잘 이해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새로 생기는 개인적인 고민, 걱정과 함께 살았었는데, 다양한 주제의 명상이 그 때마다 해법을 알려주어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략) 나와 타인을 향한 비난, 쓸데없는 책임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머물다 가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거창한 걸 하지 않아도 간단히 명상을 경험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대만큼 꾸준히 진행하지는 못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고,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후기

## ▮ 향후 계획

### [정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의 확대 운영]

2025년 처음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성과가 높아 향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지속적이고 확장 가능한 체계로 구축할 계획이다.

### [심리상담 연계 체계 구축]

앱 이용 과정에서 수집된 일기나 후기 내용을 검토하여 정서적 상태 변화가 관찰되는 학생은 전문상담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려할 예정이다.

### [지역사회와의 협력 확대]

대학 재학생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 대학이 지역사회 마음건강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마음건강 데이터 관리]

향후 개인정보 부분이 고려된다면, 앱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를 활용하여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하고 향후 상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 AI기반 대학 수업혁신, HyFlex강의실 구축 및 운영



**김용석**

청주대학교  
 교육혁신원  
 직원(기술주사)

### 추진 배경 및 목적

우리 대학은 HyFlex강의실 구축을 통해 대면과 비대면, 실시간과 녹화(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간 ‘강의 균질성 확보’를 궁극적인 목표로 HyFlex 강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대면강의, 영상강의, 실시간 비대면 강의, 녹화 강의 등 학습 방법 선택에 있어 유연성을 제공하고, 수강인원 분산 및 확대를 통해 학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적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 증진을 위해 ‘AI 실시간 다국어 번역/자막 시스템’을 도입하여 HyFlex강의실에 적용하는 등 수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운영 내용

#### 1) 구축현황: 총 18개 강의실

2022학년도: 1개실 / 2023학년도: 10개실 / 2024학년도: 7개실 / 2025학년도: 1개실(구축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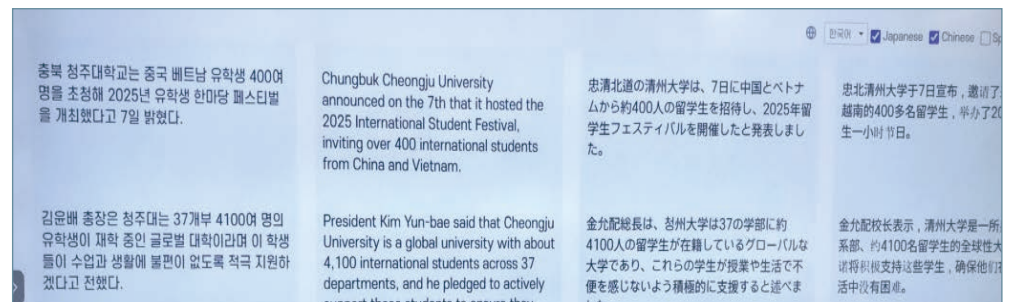
#### 2) 구축현황: 총 18개 강의실

기자재명	용도	기자재명	용도
전면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6"전자칠판 2개</li> <li>• 판서강의 기능 제공</li> <li>• 화상/실습강의 등 서로다른 화면 송출가능</li> </ul>	후면디스플레이 	교수자 강의 중 확인할 수 있도록 온/오프 참여 학생과 교안등을 표시
빔포밍 마이크 	교수/학생 음성을 추적하는 천정형 마이크로 별도 장비 필요없이 진행 가능	추적카메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 추적카메라 1개</li> <li>• 학생 추적카메라 2개</li> </ul>

### 3) AI 실시간 다국어 자막 서비스

우리 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원활한 수업 참여와 강의 내용의 이해도 증진을 위해 AI 실시간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yFlex강의실에서는 본 자막 서비스지원을 통해 교수자의 한국어 강의를 최대 100개국 언어 중 필요에 따라 설정가능하며, 이를 실시간 자막으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의 만족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 HyFlex강의실 운영 성과

### 1) 최첨단 교육시설 구축의 우수사례 평가

우리대학은 선도적 최첨단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혁신 선도 모델로 대학 및 지역사회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다수의 언론보도와 관련 기관 및 타 대학의 방문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 언론보도 : KBS충북, CJB, MBN, 중부매일, 뉴스1, 충청일보 등 다수 보도
- 타대학 및 기관 방문 : 건국대, 전북대, 안양대, 육군보병학교, 충북도교육청 등 다수

### 2) 최첨단 강의실의 적극적 활용과 학생 만족도 제고

- HyFlex강의실 활용률 65.79%로 일반 강의실 활용률(평균) 약 50%보다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강좌 운영 현황: 총 162강좌, 교원 122명
  - 학부 147개 강좌, 교원 109명
  - 대학원 15개 강좌, 교원 15명
- 최첨단 설비 구축 및 운영 결과, 강의 전달력 향상으로 학생 만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2024년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 결과(n=3,831)
  - 재학생 시설 및 교육여건 만족도 63.7점, 최첨단강의실 만족도 77.7점(각 100점 만점)

### 3) 미래형 교육혁신 선도

온·오프라인 강의 간 ‘강의 균질성 확보’를 통한 동시 진행이 가능하도록 첨단 교육시설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학습 접근과 교수법 적용이 가능한 미래형 교육혁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4)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에 기여

2025학년도 2학기(10월 1일 기준) 유학생 수가 4,06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라, 유학생 대상 강좌에 적극적인 HyFlex 강의 적용을 통해 질적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대학 방문 시에는 HyFlex 강의실을 포함한 유학생 맞춤형 최적 시설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유학생 유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추진 배경 및 목표

우리 대학은 HyFlex 강의실 운영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수업의 균질성 확보와 학습 유연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AI 기반 다국어 자막 시스템 고도화, 교수자 대상 HyFlex 활용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수업 질 향상과 학생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 대학 방문 및 벤치마킹 사례 공유를 통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다양한 교수법 적용과 학습 혁신 모델 확산을 통해 미래형 교육 환경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청주대, '하이플렉스 강의실' 운영 호응

11개의 하이플렉스 강의실 구축-100개 강좌 운영

문종국 기자



청주대학교 김윤배 총장이 4일 보건의료과학대학내 하이플렉스 강의실에서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을 학교의 각종 시설 등에 설명하고 있다.

청주대학교(총장 김윤배)가 최첨단 장비들이 구축된 하이플렉스 강의실에서 각종 강좌를 진행,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 한남대학교 사회봉사인성센터 대학 공동체의 새로운 혁신 '사제동행' 프로그램



도수진

한남대학교  
사회봉사인성센터  
담당

최근 대학은 단순한 학문 탐구를 넘어,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한 전인 교육의 장으로 그 사회적 역할의 확대를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한남대학교 사회봉사인성 센터에서는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돕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의 진행방식을 변화시켜 능동적인 참여 활동으로 지도교수와 학생 간의 인격적 교제를 장려하는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도움이 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활용 사례를 공유 하고자 한다.

들어가기에 앞서 '사제동행'의 전신인 '서로동행'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이는 지도교수 (또는 직원)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사제 간, 친친 간의 인격적 교제를 장려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었다. 주로 학기에 1회 이상, 인성 함양을 주제로 한 특강과 학과신앙공동체(학과 지도교수와 학부생)로 이루어져 대학생들과 신앙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 모임) 및 학과 동아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였고,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학생들은 안정적인 대학 생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성격이 교내 특강과 소그룹 지원이라는 다소 제한적인 형태에 머물러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단순히 모임을 지원 하는 것을 넘어, 학교에 대한 애착 증진과 학과와 학년을 초월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위해 프로그램의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사회봉사인성센터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서로동행'의 이름을 '사제동행'으로 더욱 구체화하고, 교수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학습활동(선교지 탐방, 기업 탐방 등)과 봉사활동을 접목한 '적극적인 동행'을 핵심 내용으로 혁신하였다. 이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실질적인 활동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교제를 더욱 깊이 있게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첫 번째 활동으로 금년도 1학기 5월, 서울에서 현장학습활동을 진행하였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탐방하며 우리 대학 창학정신의 근간이 되는 기독교 역사와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직접 확인하고 되새기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선유도 공원 플로깅 활동'에서는 봉사 뿐만 아니라 조별 단체 사진 콘테 스트, 평균 걸음 수 맞추기 등 미션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다양한 학과의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초반, 서로에

대해 많이 어색해했지만 차근차근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그 어색함이 허물어지고, 함께 협력하며 진정으로 활동을 즐기는 모습에서 에너지가 느껴지기도 했다.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또 한가지 초점을 두었던 것은 모든 활동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것이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용합학과 1학년 이브라히미 학생은 “평소 수업 외에는 참여하는 학과활동이 없었다. 한국인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웠는데, 같은 학과 교수님, 언니들과 함께 학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언니들이 앞으로 학과에서 많이 도와주기로 해서 다행이다.”라고 했고, 반대로 한국인 학생들은 “평소 학교에 다니며 외국인 유학생과 대화할 일이 잘 없어서 몰랐는데, 생각보다 재미있고 이야기가 잘 통해서 신기했다. SNS도 교환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제동행 프로그램이 참여자들 사이의 크고 작은 간극을 조금이나마 좁히고 인격적 교제의 기회가 되어, 대학 생활 적응을 돕고 공동체 포용력을 높이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평가해본다.



서울 양화진 선교사 모원 단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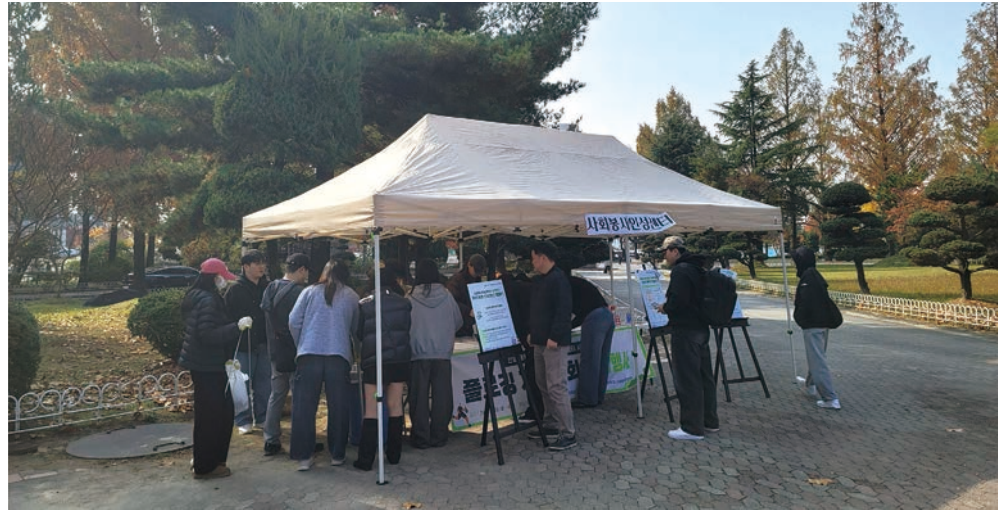


선유도 시민공원에서 조별 미션에 참여하는 모습

두 번째로 2학기 9월에는 전라북도 익산시(㈜하림 본사 탐방), 전주시(신흥고등학교) 지역으로 현장학습 활동을 다녀왔다. 한남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린튼 선교사님이 교장을 역임했던 전주 신흥고교를 방문하며 발자취를 따라 창학이념을 직접 체득하였고, 기독교 기업인 (주)하림 공장을 견학하였다. 다양한 학과에서의 참여가 인상 깊었는데, 이번 활동의 경우 식품영양학과와 경영학 전공의 학생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반응을 토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과대학별, 학과별 전공을 접목한 사제 간의 '동행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기획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글을 쓰는 시점에서 불과 며칠 전인 11월에 올해의 마지막 '사제동행'인 (플로깅 기부대회)를 교내에서 진행했다. 이 활동은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 교내 및 인근 지역사회를 청소하는 환경 봉사과 더불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개선 설문 캠페인을 병행하고,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기부 봉사까지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를 가졌다. 앞서 시행했던 타지역을 방문하는 현장학습활동의 약점을 개선하여 교내 참여자들의 접근성을 높였고, 점심시간 혹은 공강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참여 자체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지도 교수와 학생이 함께 땀 흘리며 교내·외를 청소하고, 캠페인을 통해 잘 몰랐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부봉사는 실질적인 영향력까지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설치되었던 캠페인 폼보드는 사회복지학과 학과 동아리에서 직접 제작하였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모든 과정에서 학과는 서로 달라도 지도자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사제동행'에 참여할 수 있었다.



사제동행(플로깅 기부대회) 플로깅 모습 및 캠페인 참여 모습

적극적인 현장 중심 비교과 프로그램 ‘사제동행’을 통하여 학생들은 대학 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학과와 학년을 초월한 다양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혁신적인 기획과 성공적인 운영, 학생들에게 양질의 인성 함양 및 공동체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혁신사업의 전폭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대학혁신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계속해서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학생과 교직원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흥미로운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 현장 문제 해결형 교육의 확장, 산학공동연구 프로젝트



**이은혜**

한성대학교  
 산학교육지원센터  
 팀원

## 추진 배경

한성대학교는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실무 중심 연구를 강화하고, 학생이 직접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산학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산학공동연구 프로젝트는 기존 산학 협력 활동의 성과를 고도화하고,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과 연구,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모델을 구축하여, 산학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운영 개요

한성대학교 산학교육지원센터는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산학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매 학기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제시한 실제 문제를 기반으로 교수-학생-기업이 공동 연구팀을 구성하여 약 10주간의 집중 문제해결 과정을 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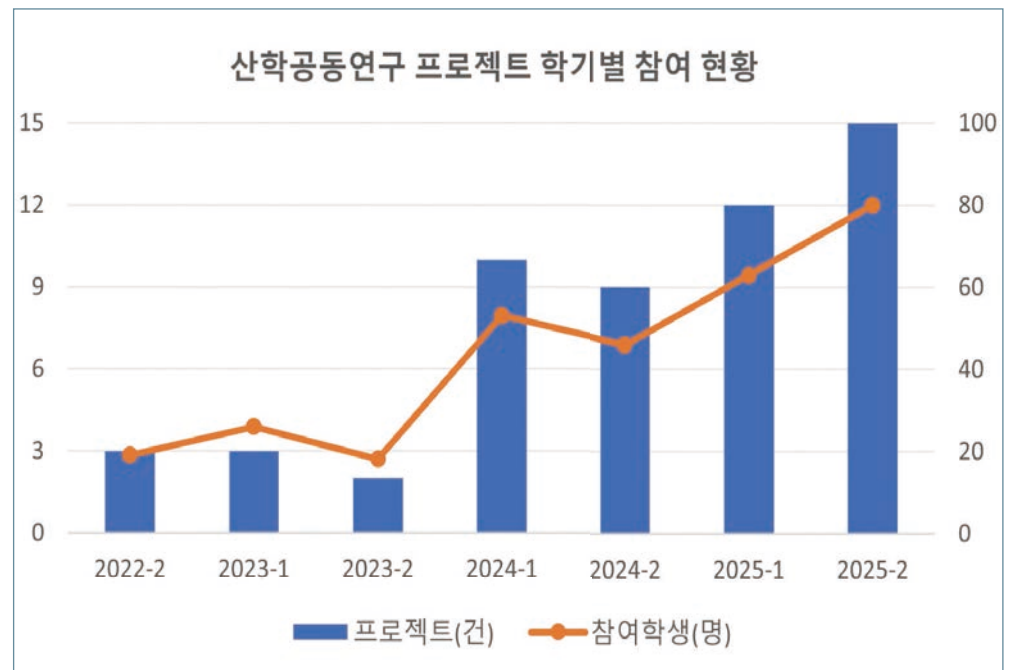
프로젝트 참여 시 선택에 따라 교과 또는 비교과로 인정되며, 연구팀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재정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실습비, 재료비 등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학생은 프로젝트 기간 중 교수진과 기업 담당자의 실질적 자문·피드백을 받으며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이론과 연계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된다. 프로젝트 결과물은 학술대회 발표, 논문 게재, 특허 출원 등으로 연계되고 있다.

참여 주제는 기업(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현장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를 지정분야 및 자율분야 주제로 구분하여 공모하고 있다.

분야	주제
지정분야	- AI 기반의 XR/VR, 로봇, 사이버 보안,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패션 중 택 1
자율분야	- 기업연계형 캡스톤디자인 혹은 High Success Project의 고도화 - 서울시 전략산업 혹은 지역현안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 관련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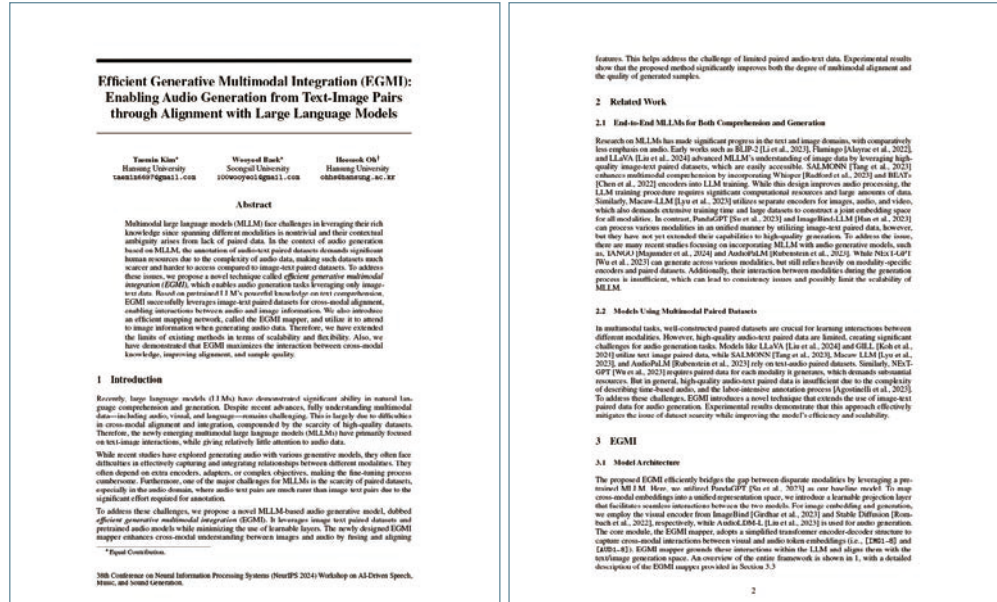
## 추진 성과

산학공동연구 프로젝트는 2022학년도 시범운영 프로젝트 3건을 시작으로 운영 건수가 증가해, 2023학년도 5건, 2024학년도 19건, 2025학년도 현재 27건까지 확대 운영 중에 있다. 참여 학생 수도 함께 늘어나며, 2022학년도 19명에서 2025학년도 143명에 이르기까지 7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러한 양적 성장과 함께, 프로젝트 결과물에 기반한 대외성과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4학년도 1학기에는 오O석 지도교수와 김O민 학생(IT융합공학부)이 수행한 프로젝트(생성형 AI에서의 이중 멀티모달 데이터 정렬에 관한 연구)에서 국제학술대회 NeurIPS 2024에 논문을 출판하며, 수준 높은 연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했다. 같은 학기 컴퓨터공학부 황O태 교수가 이끄는 팀(박O원, 이O건, 윤O비, 하O린, 김O비, 전O린, 양O연 학생)은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을 위한 자동 분리수거 AIoT 시스템을 개발하고, 프로젝트 결과물로 2024 Cisco 해커톤 ‘Cisco Innovation Challenge’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Teamin Kim, Wooyeol Baek, and Heeseok Oh, "Efficient Generative Multimodal Integration (EGMI): Enabling Audio Generation from Text-Image Pairs through Alignment with Large Language Models," Conference o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NeurIPS) Workshop on AI-Driven Speech, Music, and Sound Generation, 2024



2024 Cisco 해커톤 Cisco Innovation Challenge 장려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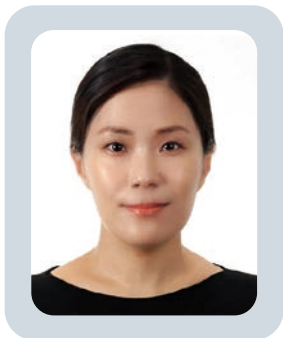
2024학년도 2학기에는 “멀티모달리터를 지원하는 상식 이해 기반 가상 인간 서비스 모델 연구”를 주제로 한 산학공동연구 프로젝트에서, 송O화·이O기 지도교수와 김O훈 학생(컴퓨터공학부)이 함께 수행한 연구 결과가 AICompS 2024 국제학술대회에서 “SCOPE : A Transformer-Based System for Predicting Influencer Popularity via Comment Sentiment and Topic Analysis”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같은 프로젝트에서 송O화 지도교수와 홍O창, 전O우, 최O서 학생(컴퓨터공학부)은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분석 기반 실시간 면접 코칭 시스템” 논문을 ACK 2024 학술대회에 발표해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 학생주도형 해외탐방사업 KBU 글로벌 챌린지



문지예

한국성서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  
센터장

## 추진배경 및 목적

한국성서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는 2023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학생의 비즈니스 환경 이해와 글로벌역량 향상을 위한 '학생주도형 해외탐방사업 KBU 글로벌 챌린지'를 운영해왔습니다. 'KBU 글로벌 챌린지'의 핵심은 자기주도성입니다. 학교가 정해준 코스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전공과 연계된 주제를 직접 발굴하고 방문할 국가와 기관을 섭외하며 현지에서의 활동계획까지 모든 과정이 학생 주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 운영 내용

### 1) 팀 구성 및 주제 선정

학생들은 전공 및 진로와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과 자료조사를 통해 탐방 주제를 선정합니다.

## 2) 기획 및 기관 섭외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가장 많이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해외 기업이나 기관에 직접 연락을 취하고 거절당하는 경험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대안을 찾는 끈기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배웁니다.

## 3) 심사 및 선발

참가 신청서, 탐방 계획서, 그리고 핵심 내용을 담은 발표 영상 심사를 통해 열정과 잠재력을 갖춘 팀을 선발합니다.

## 4) 사전 준비 및 지도

선발된 팀은 취창업지원센터의 집중 지도를 통해 현지 인터뷰 준비 등 내실 있는 탐방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합니다.

## 5) 현지 탐방 수행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일정에 따라 각 국가의 다양한 기관(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을 방문하여 주도적으로 탐방을 수행합니다.

## 6) 탐방보고서 작성

탐방을 마친 후 현장에서의 배움과 추가적인 자료조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탐방을 경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역량으로 내재화하고 구성원들과 성과를 공유하며 성장합니다.

### • 2023년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미국):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 탐방
- 사회복지학과&성서학과(일본): 선진화된 사회복지 제도 탐구 및 일본의 복음 전파방법 연구

### • 2024년

- 간호학과(호주): 호주의 선진 의료 시스템과 간호사 처우, 의료체계 벤치마킹
- 영유아보육학과(일본):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하여 일본의 유아교육 현장 탐방

### • 2025년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독일): 독일의 선진 IT 기술 및 산업 현장 탐방
- 영유아보육학과(일본): 일본의 유아보육 시스템 및 정책 현장 연구

## ▮ 운영 성과

KBU 글로벌 챌린지는 준비 과정에서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학생들의 핵심 역량(국제 문화 이해 및 비즈니스 환경 경험, 언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강화, 문제해결능력 향상, 네트워크 형성 및 직업능력개발 등)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매년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여 학생 만족도는 2023년 97.6점, 2024년 100점, 2025년 96.7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24년도부터 실시한 글로벌 역량 진단 점수 역시 90.7점이라는 높은 성취도를 보였습니다.

## ▮ 참여학생 인터뷰

### 〈2025년 독일탐방 참여 학생(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독일 뮌헨과 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의 2주는 세계 큰 변화와 성장을 안겨준 시간이었습니다.

TUM과 TU Wien에서 학문과 연구의 깊이를, Celonis에서는 AI 프로세스 마이닝 기술의 산업 적용을, Wien Linien에서는 기술의 실용성을 체감하며,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가치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신을 당당히 표현하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배우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영어로의 소통이 부끄럽기보다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열린 태도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며 제안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성장할지를 선택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동기들은 그 여정 속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짧지만 깊이 있는 여정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해진 자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 〈2025년 독일탐방 참여 학생(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글로벌 챌린지를 통해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익숙했던 한국을 떠나 모든 것이 새로웠던 유럽에서 시야를 넓혔습니다. 유럽의 인간 중심적인 교통 시스템과 독일 기업 Celonis SE의 체계적인 업무 방식은 새로운 통찰을 주었으며, 특히 Celonis 측이 먼저 제안한 저희 대학과의 교류 가능성은 팀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뮌헨 공대와 빈 공대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AI, 항공우주 등 현재 유럽에서 주목받는 기술 분야가 제 진로와 맞닿아 있음을 확인하며 학문과 산업의 연결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지 한인 개발자 및 전문가들을 만나 해외 대학원 진학과 취업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들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 경험은 단순한 탐방을 넘어,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해외 진출에 대한 강력한 자극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 〈2025년 일본탐방 참여 학생(영유아보육학과)〉

이번 글로벌 챌린지를 통해 일본의 여러 교육기관을 탐방하면서, 유아교육의 본질과 방향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영유아가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교육 현장은 놀이와 배움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교사는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 영유아가 선택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 교사가 되었을 때 아이들을 주체적인 존재로 존중하고, 발달을 위한 다양한 자원과 매체를 활용하여 즐거움 속에서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글로벌 챌린지는 단순한 해외탐방이 아니라 더 나은 교사가 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게 해 준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5 독일 Celonis 기업탐방 - AI 프로세스마이닝 현장 견학



2025 일본 도쿄대학교 탐방 -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이론적 기반 탐구

한국성서대학교는 앞으로도 'KBU 글로벌 챌린지'를 통해 학생들이 결과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성장하는 KBU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 HUFSAbility Festival, 비교과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



천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혁신원 혁신지원팀  
담당

## 개요

### ▶ 한국외대 외전(外傳)이란?

본 행사는 핵심역량통합관리시스템(HUFSAbility)을 기반으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학생 주도 학습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모두를 위한 행사(All for All)'라는 기조 아래 교수·학생·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며, 외대의 대표적인 비교과 성과확산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외전(外傳)'은 '외부로 널리 전하다'라는 뜻처럼, 대학혁신성과를 학내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확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시에 '펼 전(展)'은 학생이 자신의 성과를 무대 위에서 펼치고, '싸울 전(戰)'은 스스로와의 도전을 통해 성장하며, '전설 전(傳)'은 그 성과를 대학의 교육자산으로 남긴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외전은 단순한 발표회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이 외대의 전설로 이어지는 교육혁신의 장"을 뜻한다.



제4회 외전 현장사진

1부	
성과확산	학생교육혁신단 BOO스터 비교과 프로그램 홍보 영상
지역연계	외대쌤 영어브리핑: 학습 전환기 학생 대상 지역사회 멘토링 프로그램
심리상담	학생상담센터 또래상담: 전문 또래 상담가 주도 마음건강 프로젝트
진로설계	H-UP 진로탐색학점제 9기: AR를 결합한 가구시장 플랫폼 제작
학습역량	생성형 AI Booster pack: AI로 만드는 지역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
교과 연계	HUFS C.C.S 혁신교과목: 민·관·학 협업 ESD 공동인증 학점제
2부	
특별강연: 학생 비교과 성공전략	
핵심역량 및 비교과 지식 퀴즈 골든벨	

## ▣ 운영내용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혁신원(원장 강유덕)은 2025년 10월 31일(금),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제4회 외전: 비교과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회(HUFSAbility Festival) (이하 외전)'를 개최하였다.

### 혁신전략 ①

#### 혁신적 융복합 교육체제 고도화

핵심역량 기반 학습 생태계 구축

### 혁신전략 ②

#### 자기주도형 글로벌 특성화 교육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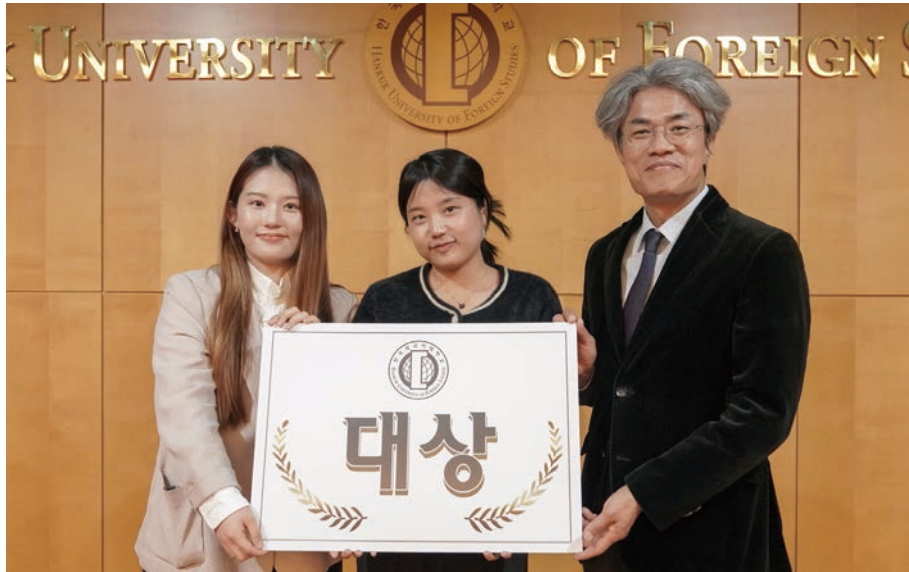
진로탐색 및 글로벌 교육 강화

### 혁신전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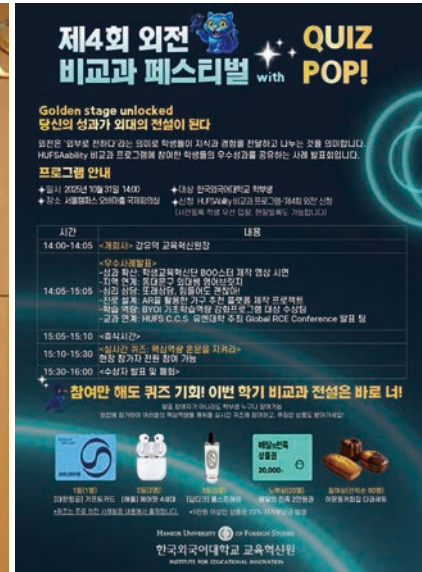
#### 4차 산업혁명 대응 교육 플랫폼 첨단화

AI-데이터 기반 교육지원체계 구축

외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3대 혁신전략과 긴밀히 연계되어 운영되었다. 각 프로그램은 학생 주도의 학습 성과가 대학혁신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우리 대학의 외전은 단순한 학습 성과를 넘어, 학생들이 참여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 계약, 창업, 국제 포럼 초청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제4회 외전 대상 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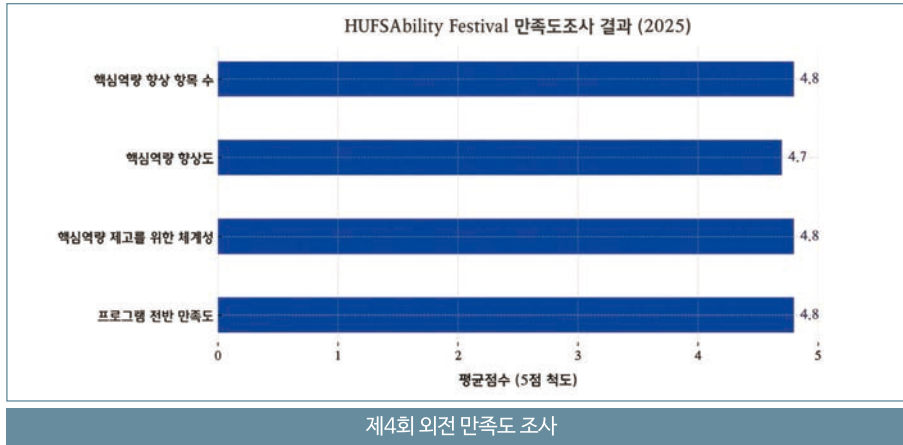
제4회 외전 홍보 포스터

대상은 도봉구청-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협업한 지속가능발전교육프로젝트(ESD)를 진행한 HUFSC.C.S ESD 교과 연계팀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H-UP 진로탐색학점제를 통해 AR 가구 플랫폼을 제작한 팀이 받았으며, 현재 '경기 청년 캡이어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후속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우수상은 '외대쌤 영어브릿지' 프로그램의 멘토가 수상했다. 이 프로그램은 외대 멘토들이 체계적인 훈련과 컨설팅을 받은 뒤, 동대문구 학습 전환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티칭을 수행한 모델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처럼 여러 팀이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복지·산업 여건 개선에 기여하여, 우리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모델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행사 중 진행된 'QUIZ POP!' 프로그램을 통해 발표자뿐 아니라 학내 구성원 전체가 비교과 프로그램의 기회를 폭넓게 인식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참여형 퀴즈 대회로 확산의 장을 마련하였다.



학생주도 비교과 콘텐츠

### 기대 효과

- 데이터 기반 교육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HUFSAbility 중심 비교과 성과 확산
-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학생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및 자율적 학습문화 확산
-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교과 모델의 지속적 운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기반 강화

### 향후 운영 계획

- 학생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확대 추진
- 총학생회와 협력한 외전 공동 기획 및 운영 체계 구축
- 학생 참여형 비교과 생태계 정착을 위한 지속적 피드백 반영

학생사례

Student case

## 장애학생 학습지원 및 멘토링 활동 ‘같이의 가치’



신선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학생

저는 강남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진행한 2025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인 장애학생 학습지원 및 멘토링 활동 ‘같이의 가치’에 참여하였습니다. ‘같이의 가치’는 학생이 멘토, 장애학생이 멘티가 되어 함께 학업, 감정, 진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사회복지학부 재학생이자 2025학년도 장애학우학생회 학생회장으로서, 이번 활동을 통해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관계 중심 사회복지’를 실제 장애 학생과의 멘토링 관계에 적용하여 한 사람의 내면적 회복 과정을 함께 경험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멘티를 단순히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동행자’로서 관계를 맺는 것이 이번 멘토링 활동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활동 초반에는 자기소개와 키워드 카드를 만들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감정 그림일기와 감정 엽서 만들기를 진행하며, 감정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가능한 한 멘티가 자신의 감정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경험도 함께했습니다. 또한 교양 권장 도서 『도파민네이션』을 함께 읽으며 ‘쾌락과 고통의 균형’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자기 조절력과 회복탄력성의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이후 학업 멘토링으로 확장하여 학습계획을 점검하고, 시험공부를 함께 하며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멘티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관계 속에서의 긍정적 변화가 개인의 성장으로 이어짐을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사회복지 실천이 단순히 이론이나 제도적 지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구체적 경험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것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감정적 교류를 통해 얻은 통찰은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 갖춰야 할 공감 능력과 실천적 민감성 역량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일할 때 실질적인 개입의 방향을 세우는 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멘토인 저와 멘티 두 사람 모두 장애가 있는 당사자이자 사회복지 전공생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장애’와 ‘사회복지’가 연계되어 생겨나는 강점과 상호 이해의 힘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멘토링을 통해 ‘누군가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과 더불어 제가 복수 전공하고 있는 한영문화콘텐츠를 접목하여 「나의 “꿈”을 바꿔준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이라는 작품을 ‘용인 59초 청년숏폼 영화제’에 출품하였고 소소하지만 본선진출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로 제가 참여했던 경기도 장애인 저축 지원 제도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이 한 개인의 자립과 꿈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스토리

텔링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결국 '같이의 가치'에서 배운 관계적 회복과 사회적 연대의 감정이 공모전이라는 창의적 실천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강남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같이의 가치'는 단순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혼자가 아닌 '같이'의 힘을 체감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학우학생회 회장으로,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지역사회의 장애인이 감정적으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음건강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같이의 가치'는 저에게 사회복지의 본질이 '변화'가 아닌 '관계'임을 일깨워 준 시간이었으며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꿈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 신입생들의 첫 길라잡이가 되어주다 전주대학교 JFM 멘토링 참여 사례



이현주

전주대학교  
인문콘텐츠대학  
웹툰만화콘텐츠학과  
학생

## ▮ 배경 및 목적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에게 학교생활은 설렘인 동시에 낯선 도전입니다. 당장 낯선 수강 신청 시스템과 마주해야 하고, 복잡한 전공 공부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미로 같은 학교에서 강의실은 어디인지 등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이때 '편하게 물어볼 선배 한 명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JFM 멘토링 활동 사진

이처럼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우리 대학의 'JFM 멘토링'입니다. JFM 멘토링은 Jeonju university Freshman Mentoring의 약자로, 신입생 멘티와 재학생 멘토가 한 팀을 이루어 전공탐색, 학업, 대학생활 등 다방면에서 멘티의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돕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 학기인 약 3개월 동안 진행되며, 멘토 한 명당 5~6명의 멘티를 맡아 활동합니다. 같은 학과 선후배는 물론 멘티들은 또래 동기들과도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JFM 멘토링의 멘토가 된 것은 제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작년, 2024년에 우리 대학에 입학한 후 참여한 JFM 멘토링이 적응에 크게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전공이 신설된 첫해(1기) 신입생이라 학과 내에는 의지할 선배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질문할 사람이 없다는 게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비록 같은 전공은 아니었지만, JFM 멘토링을 통해 만난 다른 학과 선배님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사함과 든든함을 저도 꼭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나도 내 후배들에게 저런 든든한 선배가 되어주자.” 그 마음 하나로, 올해 드디어 후배가 들어오자마자 망설임 없이 멘토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생들에게 제가 그토록 바랐던 ‘든든한 첫 선배’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올해 멘토링 활동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 ▮ 전공을 활용한 나만의 멘토링 방식

JFM 멘토링의 가장 큰 매력은 멘토의 주도하에 활동 방식을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공의 특색을 확실히 살릴 수 있는 활동으로 준비하고 싶어 고민하던 중, 그림이라는 공통점을 살펴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전공 특성상 디지털 드로잉을 주로 다루지만, 6명의 멘티와 함께 학과 실습실에서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모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펜 크로키’를 선택하였습니다. 크로키는 동세가 잘 드러나는 사진 자료를 준비하고, 1분 타이머를 맞춰 제한 시간 안에 형태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그려야 하다 보니 다들 높은 몰입도로 그려 나갔습니다.

드로잉을 다 마친 후에는 각자의 노트를 돌려보며 피드백 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부족한 면을 배워갔습니다.



크로키 활동 진행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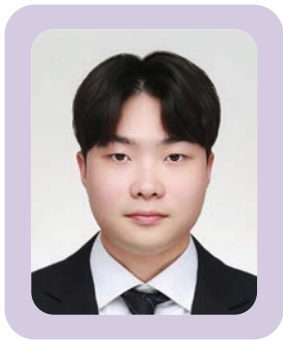
크로키 활동 진행 사진



학생사례

Student case

# 다시, 정상으로 Baja Student Korea 2025 우승기



유준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계공학부  
학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의 지원을 발판 삼아, 끊임없는 도전 끝에 대학생 자작 자동차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 ▮ Baja Student Korea 대회와 자연인

Baja Student Korea는 한국자동차공학회에서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오프로드 레이싱 대회입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자작 자동차 동아리 ‘자.연.인(자동차를 연구하는 사람들)’팀은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국 대학팀들의 기술력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고, 프로 드라이버까지 출전하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습니다. 그 결과 2024년까지는 2·3위권을 오가며 우승 문턱을 아쉽게 넘지 못했습니다.

## ▮ 밤샘 작업과 팀원들의 노력

2025년, 제가 팀의 회장을 맡게 되면서 목표를 ‘우승’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팀의 기술 역량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자 했습니다. 우선, 대회 최초로 EV Baja 차량에 4륜 구동 시스템을 도입하여 가속 성능과 험로 주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현가장치의 설계를 최적화**하여, 전년도 차량의 언더스티어(undersreer) 문제를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이니 주행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의 이면에는 팀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2개의 인휠 모터와 1개의 BLDC 모터를 동시에 제어해야 했기에, 팀원들은 공학관에서 쪽잠을 자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테스트 주행 도중 컨트롤러 오류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장으로 복귀해 차량을 분해해 문제를 찾아내고, 밤을 새워 수정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자연인 팀을 끝까지 버티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테스트 주행 중, 차량 정비



진흙에 뒤덮인 차량과 드라이버

### ▮ 노력이 빛을 발하다. 성공적인 테스트 주행

대학혁신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주최하는 공식 테스트 주행에 참가했습니다.

실제 레이스 트랙에서의 첫 주행이었기에 팀원 모두 긴장된 마음으로 차량을 주시하며,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공구를 손에 쥔 채 대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차량은 완벽한 컨디션으로 트랙을 질주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증명되듯, 다른 차량을 연이어 추월하며 랩 타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드라이버로서 마지막 랩을 달리던 순간, 저는 그동안 함께 밤을 새우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극복해온 팀원들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본 대회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모든 노력을 결과로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굳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로드 트랙을 달리는 차량

### ▮ 성공적인 결승전의 발판, 오토크로스

본 대회가 개막하자 저희 팀의 차량은 안전 검사, 제동 성능 테스트, 동적 성능 테스트를 차례로 통과하며 안정적인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후 예선전의 그리드 순서를 결정하는 오토크로스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오토크로스는 트랙 한 바퀴를 가장 빠르게 주파한 차량이 1번 그리드를 차지하는 경기로, 모든 팀이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긴장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다른 팀의 랩타임 점점 단축되며, 저희 팀이 테스트 주행에서 세운 기록도 깨졌습니다. 이에 팀원들은 코너별 주행 데이터를 세밀히 분석하고, 녹화 영상을 기반으로 최적의 주행 라인을 반복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다시 한번 트랙 신기록을 세우며 예선 그리드 1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드 1번을 차지한 자연인팀 차량

### ▮ 새로운 역사를 쓰다, 대회 역사상 최초 3회 우승

예선전을 1위로 마무리하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 전까지 모든 경기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한 덕분에, 안정적인 페이스만 유지한다면 종합 우승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수는 '차량 무게'였습니다. 4륜 구동 전기차라는 우수한 출력을 강점으로 지낸 대신, 9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야하는 결승 레이스에서

배터리 용량 부족이 우려됐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모터 컨트롤러의 출력 제한을 조정하고, 드라이버가 코너 진입 시 N단(중립주행)을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승 레이스 내내 자.연.인팀은 강팀들의 추월 시도를 차분히 방어하며 효율적인 전비 주행을 이어갔고, 라디오 담당자는 실시간으로 배터리 잔량과 랩타임을 분석해 주행 페이스를 조율했습니다.

모든 팀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결과, 자.연.인팀은 대회 역사상 최초로 세 번째 종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기술력과 팀워크, 그리고 수년간 이어진 도전의 결실이었습니다. 함께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학교와 대학혁신사업단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Baja Student Korea 2025 시상식

## 자작 자동차 활동을 마무리하며

3년간 이어온 자작자동차 활동을 우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한 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회장으로서 팀을 이끌며 대학혁신사업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팀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학혁신사업단의 연구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운영 부담을 덜고 차량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올해 자.연.인은 Formula 부문에도 새롭게 도전했습니다. 비록 결승까지 진출했으나 수상권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팀의 기술력과 자신감은 한층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후배들이 이 경험을 토대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팀을 이끌어가리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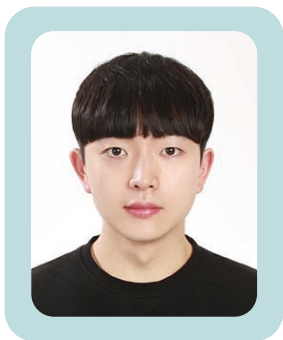
한 해 동안 자.연.인이 우승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대학혁신사업단 담당자님, 경진대회 업무를 함께 도와준 강민수 학우, 그리고 차량 제작을 지원해 주신 여러 기업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승이 끝이 아니라, 자.연.인이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행사소식

Student case

# 학생 중심 통합상담체계 'DU-CareBridge' 구축 및 운영



**이태균**

대구대학교  
 기획처 성과관리센터  
 담당

대구대학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학생상담의 체계적 지원과 대학 구성원의 상담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통합상담지원체계 'DU-CareBridge'를 구축하였다. 이 사업은 학생의 학업, 진로, 심리, 장학 등 상담 전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상담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상담관련 대표적 혁신 사례이다.

## 통합상담체계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구성원 네이밍 공모전

성과관리센터는 기존 'All in Care' 시스템 명칭이 교내 타 시스템과 혼동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학생과 교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통합상담지원체계 네이밍 공모전'을 2025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했다.

공모전에는 총 144건의 창의적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학생·교직원 심사를 통해 5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특히 반도체전자공학전공 정○현 학생의 'Care Bridge'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대구대학교 통합 상담지원체계의 새 이름 'DU-CareBridge'로 확정 되었다.

'DU-CareBridge'는 "학생의 마음과 미래를 잇는 다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대학의 다양한 상담 서비스(진로·심리·취업·장학·학사 등)를 하나로 연결하는 허브(Hub) 역할을 상징한다.

새로운 명칭은 상담 서비스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인식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잡아갈 것이다.

**All in Care 네이밍 공모전**

All in Care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접수기간 2025년 4월 1일 ~ 4월 10일

**모집대상**  
 대구대학교 구성원 누구나

**공모주제**  
 대구대학교 학생들이 원활한 대학 생활을 위한 전문기관의 상담 운영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다양한 학생 맞춤형 상담 게이트 서비스를 창출하는 창의적 이름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 - 50만원
- 우수상: 1명 - 30만원
- 장려상: 3명 - 10만원

**접수방법**  
 \* QR코드를 스캔하고 쉽고 빠르게 참여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행사공지 및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성과관리센터 (053) 850-5507

### ▣ 상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과 상담 품질 제고를 위해 대구대학교는 '2025학년도 1학기 DU-CareBridge 워크숍'을 2025년 5월 16일 평생교육관 소극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각 학과(부) 교원, 조교, 교내 상담부서 실무자 등 약 70명이 참여하였다.

행사는 마음봄심리상담센터 김태희 대표의 강연 「소통으로 여는 학생 마음: 경청과 공감의 의사소통전략」으로 시작되었으며, 참석자들은 학생상담에서 핵심이 되는 '경청과 공감'의 기술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학습하였다. 이를 통해 상담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학업 지속 의지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소통방식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 ▣ 지속 가능한 상담지원 환경 조성

성과관리센터는 매년 교체되는 학과 조교 및 상담 실무자들의 업무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DU-CareBridge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상담의 표준화, 상담 프로세스의 일원화, 상담 품질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해졌으며, 학내 구성원의 상담역량 향상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향후에는 상담이력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학생별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상담 내용의 통합 분석을 통해 학생중심 데이터 기반 상담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성과관리센터는 DU-CareBridge를 통해 “학생이 행복한대학, 상담을 통한 대학 학생성장지원의 핵심 축이 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학생상담 DU-CareBridge 에서 한번에!**  
대학 생활의 다리가 되어드립니다.

<b>학부생활상담센터</b> 주요상담 (학부, 전공, 학업, 취업, 생활, 복지 등) 053) 850.5237/6886	<b>대학생지원센터</b> 진로·취업지원 053) 850.6780	<b>대학생지원센터</b> 대학생활지원서비스 053) 850.4911
<b>영어학업상담센터</b> 학사상담 053) 850.5050/5854	<b>교수학습개발센터</b> 학습과정 053) 850.5436-7	<b>경제학상담센터</b> 경제학상담 053) 850.5202-5
<b>국제학</b> 외국인 학업상담 053) 850.5698	<b>국제학</b> 외국인 복지상담 053) 850.5697	<b>국제학</b> 외국인 언어상담 053) 850.6206-7
<b>인권센터</b> 인권교육·인권옹호·인권지원 등 053) 850.5417	<b>보통생활관 생활실</b> 거주사 생활상담 053) 850.5262	<b>학생지원상담센터</b> 학사상담 4554 053) 850.5955-6

**학내지원 신청 방법**  
 ●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상담서비스 > 학생상담  
 ● 대구대학교 콜센터(152-2222) > "학생" 또는 "DU SERVICE" > 학생상담  
 ● 학생지원상담센터 > 학부·학과 > 상담서비스 > 상담신청

대구대학교 거점지 성과관리센터

행사소식

Student case

# [캠퍼스 혁신 특특] 교내 구성원과 함께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의견수렴 행사 개최



김민지

인천가톨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학생

## 추진배경 및 목적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혁신추진단은 3주기(2025~2027)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구성원 참여 기반의 의견수렴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 제2차 대학혁신지원사업 의견수렴 행사」를 개최하여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교직원 및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향후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에 반영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번 의견수렴은 참여 중심의 환류 구조를 정착시키고, 지속 가능한 혁신문화 조성을 위한 중요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 프로그램 개요

1부	
행사명	2025학년도 제2차 대학혁신지원사업 의견수렴 행사
일시/장소	2025. 10. 21.(화) 11:00~14:00 / 인천가톨릭대학교 가브리엘관 로비
운영주체	대학혁신추진단 사업지원팀, ICCU 익투스 서포터즈(4기)
운영대상	교직원 및 재학생
운영내용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및 추진 현황 안내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온라인(네이버폼) 및 오프라인 설문 병행 운영 자유 의견수렴 및 개선 아이디어 발굴 성과 홍보 콘텐츠 전시 및 기념품 제공
참여현황	총 402명 참여(응답률 90%)

## 추진성과

### 1) 구성원 참여 및 인지도 제고

- 교직원 및 학생 402명 참여, 전년보다 82명 증가로 참여도 및 관심도 모두 향상
- 사업 인지도는 '인지하고 있다' 79%로 전년(68%) 대비 11% 상승, 사업 이해도 증진 효과 확인

### 2) 만족도 및 참여의향 강화

- 유익성 3.99점, 운영 만족도 4.00점, 재참여 의향 4.00점 등 긍정적 평가
- 향후 적극적 참여 의향 4.05점, 사업 지속 필요성 4.19점, NPS +43점으로 긍정 확산 기반 확보

### 3) 주요 관심사 및 개선요구 도출

- 관심 분야: ▲진로·취업(68%), ▲비교과 프로그램(55%) ▲학습환경 개선(41%)
- 홍보 채널 다변화, 참여 시간대 조정, 장학 및 아이포인트 제도 개선 등의 의견 제시

### 4) 전년 대비 주요 변화

- 참여자 증가, 인지도 상승, 온라인 참여 확대(온라인 설문 52% 증가)
- 구성원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참여형 환류 구조가 공고해짐

## 기대효과

### 1) 데이터 기반 환류체계 고도화

- 학과·지위별 세분화된 설문 데이터를 차년도 사업계획, 예산 편성의 정량적 근거로 활용
- 연도별 비교분석을 통한 성과관리 DB 구축으로 체계적 환류 강화

### 2) 참여 및 소통 중심의 혁신 문화 확산

-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을 결합한 참여형 모델 정착
- 학과 특성·구성원 요구에 따라 맞춤형 홍보 및 프로그램 설계 가능성 확대

### 3) 성과 확산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고평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숏폼, 포스터, 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 및 교내외 확산
- 긍정적 성과 공유를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브랜드 가치 강화



행사사진 1



행사사진 2



행사사진 3



행사사진 4



홍보자료 1 (의견수렴 행사 포스터)



홍보자료 2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홍보자료 3 (ICCU 대학혁신추진단 인스타그램 게시)



홍보자료 4 (ICCU 대학혁신추진단 블로그 게시)

행사소식

Student case

## 혁신이 일상이 되는 대학, 조선대학교 '2025 혁신 DAY' 현장 이야기



허성철

조선대학교  
대학혁신사업지원단  
행정지원팀  
팀원

조선대학교 대학혁신사업지원단(단장 박종락 교수)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교내 홍보 및 확산을 위해 2025년 10월 29일(화) '2025 혁신 DAY'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확산, 사업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부서 총 20개 부서가 참여해 다채로운 부스를 운영하였다.

행사 성과를 가능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인 참여 건수와 만족도를 보면, 총 2,500건의 참여가 집계되어 학생 1인당 평균 4개 이상의 부스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족도의 경우 5점 만점에 평균 4.88점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인 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국어국문학부 문○수 학생은 “이번 '2025 혁신 DAY'에 참가하기 전까지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잘 몰랐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백○진 학생은 “이전에도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인 줄은 몰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번 '2025 혁신 DAY'는 학생들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직접 체험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대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과정 혁신, 비교과 프로그램, 진로·취창업 지원 등 학생 성장 중심의 혁신활동을 강화하여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를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조선대학교의 혁신 사례가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등록 데스크 운영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이주열 회장 개회사



▲ 한국연구재단 대학교육실 최동명 실장 축사



▲ 목원대학교 신열 부총장 축사



▲ 단체사진

초청특강 |



▲ 한국대학평가원 이석열 원장

권역별 단체사진



▲ 수도권



▲ 대구·경북·강원권



▲ 충청권



▲ 호남권



▲ 부산·울산·경남권

초청특강 II



▲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팀 최동기 팀장

초청특강 III



▲ 한국연구재단 중앙RISE센터 김봉문 센터장

수도권역 활동보고



▲ 대학혁신지원사업 수도권역협의회 김희연 회장

## 대학혁신지원사업 소식지 제27호 게재 원고 모집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소식지 통권 제27호(2월호)  
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소식지 콘텐츠

대분류	주제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사례	대학혁신지원사업 주요 성과사례
	대학교육혁신 사례
	기타(연구·교육·사회·공헌 분야의 대학 소식)
기고문	미래 고등교육혁신정책 어젠다(agenda)
	환경불확실성 시대(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의 대학교육 혁신전략
	국가발전(국가균형발전)과 대학의 역할
	기타(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 관련 주제)
행사소식	각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주요 행사
	기타 각 대학의 주요 행사안내

원고응모대상

▶ 대학혁신지원사업 138개 회원교의 교원 및 직원, 학생

원고분량

▶ A4 2매 이내로 제한

행정사항

1. 제출자료: 원고 및 이미지 자료(원고 제출자의 증명 사진 및 자료 사진 원본)
2. 제출기한: 2026.1.9.(금) 17:00까지
3. 제출방법: 원고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4. 제출처: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사무국 (이메일: uispc0624@gmail.com)
5. 유의사항: 해당 원고 공모 및 협조 요청은 희망자(대학)에 한하며,  
제출 원고가 많을 경우 주제에 따라 게재여부 및 순서 등 조정 가능
6. 문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사무국 ☎ 055) 320-3216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50834)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PRIME의생명공학관 106호  
TEL. 055)320-3216 FAX. 055)320-3207 E-mail. uispc0624@gmail.com